

3112
340.111

- I. 本資料는 南北韓과 周邊4強國間의 關係를 分析하기 爲한 人間模
擬實驗의 基礎資料로 提供되는 것이며
- II. 作成은 6個單位의 役割担当者로 選定된 院外의 專門家들에 依하여
模擬實驗前에 미리 研究하여 이루어진 것임.

統一戰略開發模擬實驗 基礎資料

(第3輯)



刊行責任: 鄭大圭 (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補佐官)

9/11 ✓

} 鄭大圭
 김민준
 김민준
 이기
 장근
 이문

國土統一院政策企劃室

目 次

| | |
|---------------------------------|----|
| 1. 美国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辺情勢觀 | 3 |
| 가. 머릿말 | 5 |
| 나. 1980年代 美国의 对中, 蘇關係 | 7 |
| 다. 美国의 对亞細亞同盟國 情勢觀 | 13 |
| 라. 亞細亞戰略基調와 对韓半島政策 目標 | 19 |
| 마. 美国의 对韓半島政策의 展開樣相 (結論) | 23 |
| 바. 主要 参考文献 | 28 |
| 2. 蘇聯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辺情勢觀 | 29 |
| 가. 蘇聯의 对亞細亞政策: 目標와 現實的 課題 | 31 |
| 나. 蘇聯의 对亞細亞政策에서의 当面課題 | 32 |
| (1) 对中共 包圍網 形成 | 32 |
| (2) 对美「데탕트」의 追求 | 36 |
| (3) 对日關係 改善 | 38 |
| (4) 北韓과의 紐帶 強化 | 40 |
| (5) 地理的·戰略的 地域의 確保 | 44 |
| (6)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提高 | 48 |
| 다. 蘇聯의 政策遂行 能力 | 50 |
| (1) 政治的 側面 | 50 |
| (2) 經濟的 側面 | 51 |
| (3) 軍事的 側面 | 52 |

| | |
|--------------------------------|-----|
| 라. 東亞細亞情勢에 대한 蘇聯의 反應..... | 54 |
| (1) 中·日接近에 關한 蘇聯의 反應..... | 54 |
| (2) 美·北韓接近 可能性에 대한 蘇聯의 反應..... | 55 |
| (3) 駐韓 美軍撤収에 대한 蘇聯의 反應..... | 57 |
| 마. 參考文獻..... | 60 |
| 3. 中共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邊情勢觀..... | 63 |
| 가. 머릿말..... | 65 |
| 나. 中共의 對外國觀 및 政策基本方向..... | 67 |
| 다.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 74 |
| 라. 中共의 對蘇聯, 美國, 日本의 政策..... | 79 |
| 마. 結論: 韓國이 取해야 할 政策..... | 84 |
| 바. 參考文獻..... | 87 |
| 4. 日本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邊情勢觀..... | 89 |
| 가. 머릿말..... | 91 |
| 나. 日本의 國際情勢觀..... | 92 |
| (1) 美·蘇의 軍事關係..... | 92 |
| (2) 東北亞細亞의 國際環境..... | 92 |
| 다. 日本의 韓半島情勢觀..... | 96 |
| 라. 參考文獻..... | 107 |
| 5. 韓國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邊情勢觀..... | 109 |
| 가. 韓國의 長期政策 目標..... | 111 |
| (1) 安保領域..... | 111 |

| | |
|-------------------------------------|-----|
| (2) 主權領域..... | 113 |
| (3) 人的資源領域..... | 114 |
| (4) 非人的資源領域..... | 115 |
| 나. 韓國의 政策遂行能力..... | 117 |
| (1) 安保領域에 있어서의 政策遂行能力..... | 117 |
| (2) 主權領域에 있어서의 政策遂行能力..... | 118 |
| (3) 人的 및 非人的 資源領域에 있어서의 政策遂行能力..... | 119 |
| 다. 韓國과 다른 主要國들과의 傳統的 關係..... | 120 |
| (1) 安保領域..... | 120 |
| (2) 主權領域..... | 121 |
| (3) 人的 및 非人的 資源領域..... | 121 |
| 라. 美·北韓 接近 可能性·條件 및 그 予想 展開樣相..... | 123 |
| 마. 蘇聯의 東北亞政策 轉換 可能性..... | 125 |
| 바. 美國의 東北亞政策 展望..... | 126 |
| 사. 中·日接近에 대한 各國의 反應..... | 127 |
| 아. 北韓의 對南戰略 展望..... | 128 |
| 자. 參考文獻..... | 129 |
| 6. 北韓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邊情勢觀..... | 131 |
| 가. 概 觀..... | 133 |
| 나. 北韓의 長期政策 目標..... | 135 |
| (1) 體制保存의 目標..... | 135 |
| (2) 南韓 共產化의 目標..... | 136 |

| | |
|--|-----|
| 다.北韓의 政策遂行能力..... | 138 |
| 라. 다른 主要한 国家들과의 傳統的인 關係 : | |
| 中·蘇의 關係를 中心으로..... | 140 |
| 마. 下記 事態에 대한 北韓側 態度..... | 142 |
| (1) 美·北韓 接近 可能性 : 条件 및 그 予想 展開樣相..... | 142 |
| (2) 蘇聯의 東北亞政策 轉換 可能性 및 이에 대한 各國의 對備戰略 予想..... | 144 |
| (3) 美國의 東北亞政策 變化展望과 이에 대한 各國의 對備策..... | 146 |
| (4) 中·日接近에 대한 北韓의 反應..... | 148 |
| 바. 參考文獻..... | 150 |

1. 美国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邊情勢觀

(安清市 : 外交安保研究院 助教授)

가. 머릿말

나. 1980年代 美国의 对中·蘇關係

다. 美国의 对亞細亞同盟國 情勢觀

라. 亞細亞戰略基調와 对韓半島政策 目標

마. 美国의 对韓半島政策의 展開樣相 (結論)

바. 主要 参考文献

가.머 리 말

美国의 对韓半島 情勢觀은 論理的으로 볼때 韓半島에 局限된 美国의 国家利益보다는 東北亞 情勢全般에 对한 美国外交의 挑戰과 機會에 对한 評價에 左右된다. 이와같은 論理는 駐韓美軍의 駐屯이 韓國의 安保뿐만 아니라 美国의 「아시아」政策의 核心的이고 全般的인 構造의 重要한 一環이었던 1950~60年代보다 70~80年代의 韓美關係에서 더욱 分明하게 浮刻될 것으로 보인다.

過去와 마찬가지로 未來에도 美国은 스스로의 主導力下에 韓半島의 주변情勢와 平和定着의 問題를 이끌어 가려한다. 바로 이 点에서 보면 美国의 对韓政策基調는 常數的 狀況으로 繼續 남아 있다. 그러나 具體적으로 美国의 对韓半島 行動戰略과 그 選擇을 規制하는 “安保環境”은 1960年代를 고비로 크게 變하였다. 이 變質된 安保環境을 規明하는 作業은 “當然之事”의 自動性的 原理가 韓美關係에서 점점 離脱되고 “水平關係” 또는 “葛藤狀況”으로 變模하는 理由를 헤아리는 하나의 方法을 이룬다.

本考는 美国의 立場에서 보는 韓半島와 그 周邊의 情勢觀을 中心으로 主로 以上에서 提起한 問題의 一面을 살피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便宜上 “美国의 对韓外交”란 複雜한 政策決定의 構造와 過程을 單純化하여 그것이 窮極적으로 韓國의 外交政策決定者에게 認識되는 影響力의 總和로 把握한다. 따라서 이 境遇 “美国”이라는 말도 行政府, 議會, 軍部, 「매스콤」 및 輿論의 諸政策

決定因子들이 相互 作用한 結果 “公式的”으로 表出되는 影響力の
합으로 理解한다.

美國의 「아시아」情勢觀은 ①美國의 對蘇 및 對中共 安保觀
②對同盟國(또는 非共產 「아시아」諸國)情勢觀 및 ③對韓半島 外交
視角으로 区分하여 아래에서 論議되고 있다.

以上の 各項에서 觀察하고자 하는 主要 課題는 다음과 같은 內
容을 中心으로 하였다.

① 「아시아」에 있어서 美國의 安保觀은 무엇이며, 이와같은 認識
의 틀 內에서 追求하려는 國家利益의 「파라메타」는 어떻게 把
握되고 있는가? (行動의 場)

② 問題의 國家利益을 保護하고 增進하기 爲하여 美國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가? (選擇의 戰略)

③ 以上 ①②의 結果로서 判明할 때 豫測 가능한 “合理的” 政策代
案(들)은 무엇인가? (合理的 選擇: 政策)

나. 1980年代 美國의 對中. 蘇關係

a. 對蘇聯 安保觀

1980年代를 보는 美國의 對「아시아」安保觀은 적어도 歐羅巴보다는 「아시아」가 훨씬 樂觀적이고 危險에 對한 노출도가 적다는 判斷이다.

1960年代末까지 美國은 「아시아」의 威脅은 蘇聯보다는 中共이라는 計算아래 「아시아」安保政策을 構想하여 왔다. 特히 美國의 戰略決定者들이 가장 두려워한 事態는 「아시아」에서 蘇聯과의 單獨 戰爭威脅이라기 보다는 中蘇가 共謀하여 美國의 防禦戰線을 歐羅巴와 「아시아」로 各己 兩分하여 그 戰力을 흩어지게 하는 事態였다. 그러나 中·蘇紛爭이 激化되는 時期를 後続하여 일어난 70年代初의 美·中共 接近은 美國의 戰略構想을 急激히 變化시켰다. 이와같은 事實을 「브라운」(Harold Brown) 國防長官은 最近 다음과 같은 말로서 明白하게 表現하고 있다.

東「아시아」에서 增大하고 있는 蘇聯 및 中共의 軍事力은 主로 서로를 敵對視 하면서 相互 겨냥하고 있다. 其中 어느 한

註1. 1978年2月20日 Harold Brown 國防長官이 Los Angeles 의 World Affairs Council에서 行한 "US Pacific Defense structure" 中에서 拔萃

쪽도 軍事力으로서 「아시아」에서 重要的 政治的 利点を 얻을 能力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中·蘇)의 紛糾는 美國이 「아시아」에서 中共 또는 中·蘇를 相對로 戰爭해야 할 개연성을 크게 줄여 놓았다. 美國은 以上 「아시아」에서 中共을 相對로 하는 地上戰을 前提로 軍事計劃을 하지 않을 것이다.

傳統的인 友敵關係가 뒤바뀌는 듯한 印象을 주는 이와같은 事態는 歐羅巴와 「아시아」에서의 兩面戰爭의 威脅을 이제는 美國이 아니라 蘇聯의 問題로 提起하게 되었다. 事實上 歐羅巴와 「아시아」戰線은 蘇聯으로 보아서는 가장 隔離된 戰場일뿐만 아니라 美國으로서는 戰略적으로 그리 重要하지 않은 中·蘇國境에 蘇聯의 「아시아」兵力の 主力을 묶어 놓는 結果를 意味함으로 一舉兩得의 利점을 提供한다. 한편 蘇聯이 美·中共合作의 危險을 認識하거나 美國의 對中共 軍事支援 또는 新武器 搬入을 憂慮하는 限 太平洋의 海軍力을 增加하거나 對美·中 牽制政策을 取하기는 할 것이지만 基本的으로 「데탕트」構造를 變革하거나 「아시아」의 現狀維持의 基盤을 挑戰할 冒險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判斷이 美國의 戰略決定者들의 一般的 認識이다.

이와같은 情勢觀은 곧 「아시아」에서 蘇聯은 大規模의 軍事力 增強에도 不拘하고 이것이 政治力の 增大로 轉換되거나 美國의 「아시아」利益을 威脅하는 要素로 作用할 可能性이 적다는 判斷을 조야에 불러 일으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美國은 中·蘇의 歷史的 紛糾는 1980年代에도 그대로 持續할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B. 对中共情勢觀

한편 中共에 對하여도 美國은 앞으로 적어도 「아시아」地域에서는 中共의 正当한 利益과 美國의 域内利益이 相互間에 根本적으로 配置되는 零和게임 (Zero-sum game)의 樣態가 再現되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다. 이와같은 判斷의 發판은 처음에는 文化, 社会体制, 「이데오로기」 및 外交政策의 차이를 認定하면서도 敵對關係나 敵對行爲를 解消한다는 이른바 「데탕트原理」의 一環에서 出發하였다. 그러나 「닉슨」의 中共訪問以後 世界人口의 25%를 차지하는 國家에게 國際政治的 發言權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는 學界와 輿論의 분위기는 繼續 外交担当者들의 政策環境을 压迫하고 있다. 中·蘇紛糾의 歸趨에 따라 可變性이 크기는 하지만, 1980年代에는 美·中共關係가 完全한 国交正常化나 美國의 对中共 軍事援助段階에 까지 이르지도 모른다는 觀測이 있기도 하다(註2)

註2 美·中共 国交正常化의 压力은 75年以後 繼續 增加하고 있으며, 1976年4月 国防長官 Schlesinger는 Kissinger 國務長官과 未來에 對한 行動可能性의 하나로 中共에 美國武器를 供与하는 問題를 協議한바 있다고 言明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76年10月 Kissinger 長官은 Harvard 大學의 記者會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傳해진다. 「우리는 中共으로부터 武器販賣를 要請받은 일도 없고 이에 對하여 中共과 協議한 바도 없다」 그러나 國務省의 國際安保担当 高位官吏였던 Leslie H. Brown에 依하면 美國은 1975年 12月 英國이 中共에 젯트 엔진 製造工場을 販賣하는 것을

그러나 對蘇政策의 觀點에서 볼때 大體로 1980 年代까지 美國은 慎重한 登距離外交로서 「아시아」에서 中·蘇의 勢力을 均衡시키는 한편, 交渉과 힘을 複合적으로 驅使하여 紛争의 촉발을 防止하는 것이 美國과 그 主要 同盟國家의 利益을 가장 効果적으로 지키는 方案이라고 보는 見解가 支配的이다. (註 3)

追認함으로써 적어도 間接적으로 中共의 軍費潛在力增強이 美國의 國家利益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立場을 是認하는 예증을 굳혀 주었다고 記錄하고 있다. Leslie H. Brown, American Security Policy in Asia (Adelphi papers, 1977) p.25 參照

註 3 . 이와같은 見解를 Scalapino 教授는 다음의 引用文에서 잘 壓縮하여 表現하고 있다. "Our fundamental policy ought to be the effort to achieve a rough equidistance in our relations with China and the Soviet Union, tilting consistently toward neither, considering our position issue by issue, with dependence upon the American national interest and that of our allies, seeking a prevention of conflict through a position of negotiations from strength, insisting on reciprocity and accountability. It is this formula, it seems to me, which can preserve our own interests and, in broader terms, those of the Asians, Communist or non-Communist. Institute for Asian/Pacific Studies, Security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Univ of San Francisco, 1977), pp. 54~55 에서 引用

C. 对中·蘇 安保政策의 目標

以上과 같은 对中蘇 情勢觀에서 出發하는 美國의 「아시아」 安保利益은 大略 다음과 같은 目標과 原則下에서 具現되고 있다.

① 「아시아」에서 美國 또는 그 同盟國에 對한 蘇聯이나 中共의 武力侵略을 阻止한다. 이와같은 目標은 가장 重要하기는 하나 比較的 樂觀的이다.

② 「아시아」에서 美國 또는 그 同盟國의 利益에 對한 蘇聯이나 中共의 政治的 介入이나 壓力을 防止한다. 軍事的 見地에서 보면 이와같은 目標은 比較的 樂觀的이나 政治, 經濟的 側面에서 相當한 危險度는 아직 남아 있다.

③ 中蘇關係를 直接的인 衝突로 이끄는 危險에 美國이 말려들지 않는다. 이는 大體로 樂觀的이지만 美國이 이 問題에 對해 主導할 수 있는 影響力은 매우 間接的이고 同時에 相當한 不確實性을 內包하고 있다.

④ 美·蘇 또는 美·中共關係를 武力衝突로 이끌 危險이 있는 潛在的 要因들을 除去한다. 이는 美·日關係와 韓半島 情勢의 展 望에 크게 左右되지만, 大體로 美國이 統制할 수 있는 變數의 支配를 크게 받음으로 "조심성 있는 樂觀論" (guarded optimism)의 政策범주에 屬한다.

上述한 바와 같은 戰略的 原則에서 보면 對共產主義陣營에 關한 美國의 國家利益은 「아시아」에서의 強國間 勢力均衡에 立脚한

政治的 安定이 最大의 目標로 提起됨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安保觀은 「아시아」에 있어서의 美國과 그 同盟國들에 對한 政治 外交的 關係一般과 特히 韓半島問題에 關한 美國의 外交視角을 크게 左右한다. 以下에서는 이 問題를 東南亞와 日本 및 韓半島問題로 나누어 좀더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다. 美國의 對「아시아」同盟國 情勢觀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美國의 政策担当者들은 機會있을 때마다 앞으로 美國이 「아시아」大陸의 戰爭에 直接 參與하거나 이와같은 境遇에 對備하여 軍隊를 보내야 하는 必要性은 이 이상 惹起되지 않을 것이라고 言明해 오고 있다. 이와같은 言明의 背後에는 앞서 살펴본 對中·蘇 威脅에 對한 戰略的 認識의 變化에도 크게 起因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日本을 비롯한 「아시아」同盟國들의 自助力과 政治 經濟的 安定에 對한 期待를 反映한다는 側面에서도 보아야 한다.

美國이 1970年 駐韓美軍의 二個步兵師團中 一個師團에 該當하는 兵力을 撤収할 것을 提議함과 아울러 1971年7月 日本을 訪問한 「레이드」(Laird) 國防長官은 日本의 國防力을 增強할 것을 여러 가지로 시사하였다. 또한 그는 “日本은 美國의 핵우산이 無限定 繼續될 것으로는 보지 말아야 한다”면서 間接적으로 日本의 核武器 發展計劃推進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美國은 「아시아」의 安保에 日本을 보다 깊숙히 介入시키려고 努力하여 소위 “日本再武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아시아」各國은 美國의 戰略的 目標가 分明히 「아시아」로 부터의 이탈政策(disengagement policy)이라는 事實을 突感있게 받아 들이기 始作하였다. 美國의 立場에서 보면 이와같은 政策轉換은 国内的으로 對輿論 “費用”(Cost)이 크고 外

交的으로 危險負擔率이 높은 「아시아」에서의 軍事的 準備態勢를 유연성있고 幅넓은 政治的, 經濟的 考慮로 대치한다는 意味를 가지고 있다. 이와같은 政策轉換은 大体로 다음과 같은 非共產圈 「아시아」地域에 関한 情勢判斷에 根拠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로 東南亞의 發展과 「아세안」(ASEAN) 諸國의 政治的 結束은 越南戰後 한동안 憂慮되었던 「도미노」理論을 퇴색시켰다. 東南亞에 對한 美國利益에의 威脅은 存在하기는 하나 軍事的인 主張에 의한 對処를 要求할 程度는 아니다. 따라서 이地域에 對한 美國의 政策은 현금의 有望한 地域環境을 緊張으로 이끄는 不利한 趨勢를 막거나 緩和하는 政治的 및 經濟的 努力으로서 充分히 堪當 可能하다.

둘째로 1960年代로부터 1970年代로 까지 「아시아」同盟國들의 軍事能力은 刮目할만큼 向上되었다. 特히 日本, 韓國, 臺灣의 國防費는 이期間동안 年間 8%이상의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고 이보다는 못하지만 泰國, 싱가포르, 말레이 등의 國防費도 相當히 增加하였다. 따라서 「아시아」大陸으로 부터는 美國의 公約이 軍事的으로 어느 程度 減縮하더라도 既存均衡을 破壞할 만큼 危險스런 事態로 發展할 可能性은 적어졌다.

셋째로 日本의 增大된 役割은 「아시아」안보에서 美國의 軍事的 役割의 減少衝擊을 傷害하는 重要한 補完策이 될 것이다. 日本은 「아시아」經濟發展의 「엔진」役割을 担当하고 있다. 이에 1970年代 初부터 아시아에서의 日本의 交易量은 美國의 그것보다 약

20 %를 超過하고 있다. 臺灣과 홍콩을 除外하면 日本은 1974年 現在 韓國, 濠洲, 뉴질랜드를 包含하여 東南亞 어느나라와도 交易量에 있어서 美國을 앞지르고 있다. 直接 投資方面에서도 1974年을 基準으로 보면 日本은 韓國, 인도네시아, 泰國, 홍콩 등에서 美國을 앞서고 있고 「아세안」(ASEAN) 諸國의 境遇에도 美國보다는 적지만 日本의 全海外投資總額의 20 %에 達하는 20 億弗의 投資를 占有하고 있다. (註4)

이와 같은 日本의 經濟的 役割은 東亞와 東南亞의 非共產國家들을 外侵으로부터 保護하고 內亂과 소요로부터 救濟하는데 繼續 重要한 地주役割을 하리라고 본다. 한편 美國은 日本의 이와같은 役割이 美日關係의 緊密한 協調의 기틀안에서 이루어 질것을 크게 疑心하지 않는다. 美國은 日本의 가장 重要한 交易相對國이요, 唯一한 軍事的 保護者 일 뿐만 아니라 外交問題 全般에 걸친 가장 緊密한 協助國家이다. 美日交易이나 安保關係에 있어서 日本은 美國보다 훨씬 취약한 位置에 있다. 現在까지 日本 輸出入의 20여 퍼센트가 美國에 依存하고 있고 美國의 對日輸入品目이 消費材 中心인데 反하여 日本의 對美輸入品の 大種은 原料, 食糧, 油類 등의 基本商品이다.

위와같은 事實에 勘하여 볼때 美國은 日本이 相當水準 美國의 對「아시아」役割을 떠 맡아도 美國이 主導하는 對「아시아」勢力均

註4 . Brown, op. cit., pp. 11~12 參照

衡政策이 威脅當할 蓋然性은 極히 적은 것으로 判斷한다. 다만 이 境遇 日本의 再軍備나 對「아시아」役割增大에 따르는 두가지의 問題가 美國의 政策決定者들의 關心의 焦點이 되고 있다. 그 中 하나는 日本의 国内政治的인 狀況에서 비롯하며 다른 하나는 日本의 再武裝에 對한 「아시아」諸國의 關心과 憂慮, 特히 蘇聯과 中共의 態度에 關한 問題이다.

日本의 輿論을 움직이는 重要한 지렛대인 社會主義勢力과 戰後世代는 再武裝計劃에 依하여 매우 批判的이고도 敏感한 反應을 보여 왔다. 自民黨 中心의 保守體制에 對한 新進革新勢力의 登場과 挑戰은 서서히 日本政治를 中共의 지난 몇년간과 방불한 「承繼危機」(succession crisis) 속으로 물고 있다. 日本 專門家들이 憂慮하는 바대로 1980年代에 日本의 自民黨이 現在의 主導力을 잃거나 아니면 적어도 自民黨이 中道 내지는 穩健 社會主義派와 聯合政府(coalition government)를 이루지 않을 수 없는 事態가 發生하는 境遇 美日關係가 現在 美國의 判斷대로 樂觀할 수 만은 없을 것이다. 中·蘇의 相反되는 對日接近과 壓力도 이러한 可能性을 單純한 憂慮만으로 볼수 없게 하는 重要한 要因이다.

오랫동안 日本은 美國의 安保公約의 그늘에서 中·蘇를 相互 牽制하면서 實利를 圖謀할 수 있는 所謂 「登距離外交」에 希望을 걸어왔다. 그러나 對中共 經濟關係가 急速히 深化됨과 때를 같이 하여 日·中共條約과 漁業 및 北方島嶼 領土等의 問題에서 보여준

蘇聯의 對日強硬姿勢, 東北亞에서의 急激한 蘇聯의 海軍力增強等은 日本의 對蘇 警戒心を 急激히 불러 일으키고 있다. 때를 같이하여 中共은 日本을 蘇聯으로부터 빼어놓으려고 努力하고 있다. 文化的 共同意識構造, 接觸基盤, 經濟的 潛在力等の 要因에서 보아도 日·中共關係는 日·蘇關係改善보다 우선할 可能性이 크다.

美日協助의 기틀을 우회하는 中日接近은 美國이 主道하는 「아시아」勢力均衡의 危險負擔으로 남는다. 특히 日本의 再軍備의 美·日·中의 三局協調下에서 이루어진다고 認識될 때 蘇聯의 對「아시아」安保觀은 매우 急激한 變化를 거칠것이 分明하다. 이와같은 危險負擔과 不確實性은 美國의 政策環境을 左右하는 主要變數로 如前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1970年代를 通하여 美國外交를 主道하였던 情勢觀은 다음과 같은 “조심성있는 樂觀論”이라고 보며, 이것이 1980年代에 크게 急變할 可能性은 적다고 判斷된다.

①美·日關係는 如前히 美國의 主導下에 이루어 질 것이며 이 범위를 벗어 나는 日·中共接近, 日·蘇關係 및 東北亞나 東南亞에서의 日本의 役割이 美國의 利益과 상치되는 方向으로 急轉할 可能性은 적다.

②「아세안」의 結束과 東南亞諸國의 發展과 安定基調는 軍事的 側面의 對美依存必要度を 漸次 政治·經濟的 考慮로 代치할 수 있는 條件을 成熟시키고 있다.

③따라서 美國의 軍事態勢는 “保險”用으로 돌리는 代身 同盟의 直接負擔—軍事的 및 經濟的—은 關係國에 增加시키는 한편 그 餘力을 中共과 蘇聯과의 關係改善의 費用으로 돌리는 것이 長期的 國家利益과 合致되는 길이다.

라. 「아시아」戰略基調와 對韓半島 政策目標

以上과 같은 論議의 底辺에 깔려 있는 非共産 「아시아」 安保觀은 大體로 越南戰 以後 美國의 軍事防禦線이 大陸에서 벗어나 島嶼國家들로 構成되는 새로운 戰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指摘한다. 對共防禦에 直接 關聯되는 國家群에는 日本, 필리핀,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을 包含한다. (註 5) 그런데 이와같은 國家들은 모두 外侵에 直接 노출되어 있지 않으며 共産主義와 特別히 敵對關係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美國은 인도네시아를 除外한 거의 모든 이들 「아시아」 國家들과 相互防衛條約에 依拠한 軍事的 公約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이 美國에 直接 介入을 要하는 事態에 直面할 可能性은 別로 없다고 본다. 오히려 이들 島嶼國家間에는 共産主義에 依한 侵略의 可能性보다는 그들 自身の 紛爭要因이 더 可慮거리로 抬頭하고 있다.

註 5. 臺灣도 島嶼國家로서 이 防禦線概念에 包含되어야겠지만 그 特殊한 政治的 位置에 對한 考慮때문에 除外되고 있다. 韓國은 이 범주에 屬하지않는 “特殊事例”라는 수차의 言明이 있었으나 筆者의 見解로는 韓國問題가 갖는 “「아시아」 全般에 對한 戰略的 意味에서 特殊하다는 事實이지 韓國의 安保體制가 美國의 “vital security interest”를 構成하지는 않는다는 點에서 이 戰略線에 包含되지 않는다고 본다.

以上과 같은 安保觀이 바로 政治·經濟的인 側面의 對「아시아」
政策이 軍事的 考慮에 우선하는 論理의 바탕을 이루며, 駐韓美軍의
撤收計劃도 이와같은 外交視角의 한 脈絡을 이루고 있다. 要컨데
“越南化 計劃”과 “닉슨 닥트린”, 美·中共 接近, 駐韓美軍의 撤
收決定等은 美國의 全 世界的 安保戰略의 再檢討의 一環이며 相互
獨立的인 事件들로 取扱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다.

戰略基調의 變化는—軍事配置나 基地構造의 變化를 隨伴했던—반드
시 國家利益의 概念이나 政策目標의 變化를 意味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戰略概念은 國家利益의 從屬概念이므로 外交나 經濟로 대
치할 수 있는 代案이 있는 限 國家目標은 값비싸고 危險負擔이
많은 軍事的 手段보다도 費用이 적은 外交나 互惠性이 높은 經濟
的 手段으로 好選되기 때문이다. 「아시아」의 境遇 一般도 그렇
지만 對韓半島의 境遇에도 美國의 政策目標은 大體로 “均衡”과
“安定”이라는 兩大지주로 남아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考察한 바
와 같이 變質된 安保狀況에 對한 認識과 視角의 差異때문에 美國
의 對韓半島 政策代案의 「뉴앙스」는 크게 變化하고 있으며 이
差異는 韓半島뿐만 아니라 周邊強大國 關係의 流動性을 支配하는 가
장 큰 變數로 把握된다.

美國의 立場에서 보면 美國의 主導下에 韓半島를 위요한 四強
의 勢力均衡은 「아시아」地域平和, 美國의 對「아시아」利益, 유럽의
勢力均衡의 切實한 要請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均衡은 恒久的으로

制度化하기 위하여는 軍事力보다는 이를 뒷전에 “保險”으로 둔 狀態에서 政治·外交·經濟的인 代案으로 接近하는 것이 보다 效果的이고 說得力 있는 方法일 뿐만 아니라 国内政治的인 要求와도 보다 符合하는 길이다. 이미 考察한 바와같은 樂觀的인 安保觀이 事實이라면 撤軍을 担保로 平和定着을 試圖하는 代案은 名分과 實質이 잘 符合하는 가장 合理的인 選擇의 하나이다.

美國은 北韓이 韓國에 比하여 훨씬 急速하게 戰鬥力 強化를 進展시키고 있으나 長期的 全般的 趨勢는 韓國에 有利하다는 判斷下에 撤軍計劃을 決定하였다. 게다가 駐韓美軍은 萬若 北韓이 侵攻하였을 境遇 韓國을 防衛하는데 充分하지도 않고 必要不可決한 要素로 把握하지도 않는다. 단지 政治的意義(註6)와 誤算에 依한 侵略의 沮止效果가 그 主要目的이기 때문에 東北亞 全般에 對한 安保觀이 美國內에서 急激히 變化하는 事態가 생기지 않는 限 撤軍의 壓力이 窮極的으로 優勢할 것이다. 紛争에 對한 美國의 自動

註6. 駐韓美軍은 戰鬥力의 面에서 보면 “redundancy”에 가깝지만 북괴의 誤算을 防止하는 “保險”의 意義를 지닐 뿐만 아니라 日本 및 「아시아」各國에 對한 美國의 公約을 表示하는 想徵的 意味가 크다는 點이 美國內의 撤軍論議의 中心을 이루고 있다. 즉 美軍의 殘留가 周邊勢力關係 均衡에 必須的이라고 보는 側은 撤軍을 反對하고 있고 이에 意見을 달리하는 側은 撤軍을 贊成하고 있다.

介入 危險을 줄이고 韓國의 国内政治에 대한 支持度가 減少하고 있는 輿論의 趨勢에서 볼 때 撤軍論理는 顛覆되기 힘들다. 이와 같은 立場에서 보면 앞으로의 美國政府의 對韓政策은 撤軍의 壓力을 顛覆(reverse) 하는 일이 아니라, 撤軍을 國家利益에 맞게 遂行할 수 있는 時間을 遲延시키는 일(slower time-table) 과 이를 위한 條件(condition for withdrawal)의 充實을 期하기 위하여 輿論을 指導하는 일이 中心課題가 될 것이다.

撤軍의 時間과 條件의 具備를 爲한 政策選擇의 범위는 크기는 ①蘇聯의 東北亞 政策變化 ②中·日接近에 對한 美國의 評價, ③蘇聯과 中共의 對北韓政策等 韓半島外的인 狀況의 影響을 받는다.

한편 韓半島内에서 豫想possible한 美國의 撤軍補完政策은 ①國際的 保障에 依한 韓半島의 平和定着 企圖, ②對北韓接觸을 통한 북괴의 對南戰略 轉換試圖, ③南韓에 對한 撤軍補完措施等으로 大別된다.

韓半島外的인 條件과 關聯된 美國의 政策進路는 國際政治의 全般的 構造變化와 關聯된 狀況이므로 本考의 論外로 한다. 다만 아래에서는 韓國과 美國이 直接的으로 關聯되는 韓半島内的인 情勢를 中心으로 將次 美國의 行動戰略이 어떠한 樣相으로 展開될 것이며 이로 因하여 韓美關係에는 어떠한 調和와 衝突의 餘地가 놓여있는 가를 論함으로서 結論에 이르기로 한다.

마.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의 展開樣相 : 結論

a. 平和定着의 國際的 保障策

이 問題에 關하여는 韓美兩國의 利害가 一致함으로 原則上으로 이를 둘러싼 兩國의 衝突은 1980年代에도 別로 없을 것이다. 韓國은 여러가지의 「채널」과 「시그널」(signal)로 對蘇·對中 直接接近 方法을 摸索하고 있지만 制限된 分野外에는 이것이 成功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緊密한 協助」와 韓國의 利害關係에 對한 「正當한 代弁」을 條件으로 美國은 이 問題에 對한 「自由로운 主導權」(free-handed options)을 繼續 行使할 것이다.

行動選擇의 樣相에 있어서 六者會談, 四者會談, 三者會談의 形態로 提起된 美國의 「公式的 提案」은 크게 成功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公式的 提案」方法을 병행하는 「非公式 交涉」의 方法이 相對적으로 重要하게 使用될 可能性이 크다. 따라서 交涉의 「스타일」面에서 美國은 主로 美·蘇, 美·中共, 美·日 등의 雙務的 「채널」을 多者交涉方式에 우선하여 使用할 것으로 보이며 同時에 形態面에서 高位層의 相互訪問을 利用하는 「頂上會談」, 第三國을 통한 「주선」이나 「仲介」의 方法 등이 더 많이 動員될 것이다. 이에 따라 從前까지 자주 쓰여오던 經濟, 言論, 文化, 體育, 學者等의 非政治的 「채널」은 漸次 政治的 「채널」로 代치될 것이다.

b. 美国의 对北韓 直接交渉

傳統的으로 美国의 对北韓政策은 对南韓政策의 從屬變數的인 位置에 있었다. 그러나 1970年代에는 漸次 兩者가 相互独立的인 形態로 發展하고 있으며 1980年代에는 이 傾向이 더욱 加重될 것이 展望된다. 南韓의 軍事体制가 防禦的인 性格이며, 政治体制가 对美依存型을 벗어날 수 없는 한 向後 5~10年間的 美国政策의 主眼은 南韓에서의 撤軍補完措施에 병행하는 对北韓政策이 主要展開方式이 될 것이며 对南韓政策은 对北直接交渉의 進歩樣態에 크게 依存하거나 이에 附隨的으로 展開될 可能性도 또한 排除할 수 없다.

对北韓 直接交渉은 美国外交의 가장 未發達된 分野이며 特히 이 는 韓國이 매우 敏感하게 느끼는 部分이기 때문에 相當한 조심과 外交的인 伸縮性의 妙를 必要로 한다. 韓國은 이것을 撤軍補完과 北韓의 对南戰略 轉換이 前提된 後의 代案으로 美国에 要求하고 있으나 美国外交의 視角에서 보면 对北韓接近 自体가 重要한 撤軍補完策을 이룬다. 따라서 韓國의 反對에도 不拘하고 美国은 이 目標을 追求하되 當分間은 非政治的 方法을 重視함과 아울러 輿論化나 公開化를 可能한 限 피하는 “非決定的인 政策決定方法”의 外交「스타일」을 指向할 可能性이 크다.

한편 北韓의 誤算이나 그 意圖에 对하여는 美国도 相當히 不確実性에서 오는 危險負擔을 認識하고 있다. 이 때문에 韓半島外的

인 強大国均衡이나 南韓에 대한 戰力補強 問題보다 對北接近이 우선하여 이루어지거나 前者의 要件들이 惡化되는 境遇에도 後者の 政策路線 - 對韓關係改善 - 이 獨走하는 事態로 進展될 可能性은 적다. 다만 對韓政策이 점점 美國民의 輿論에 敏感해져가는 趨勢에 비추어 볼때 앞으로 美國內의 對韓「이미지」가 보다 惡化되는 境遇이것이 間接적으로 美・北韓關係改善을 推進할 可能性은 排除할 수 없다.

○. 美國의 對南韓 撤軍補完問題

撤軍補完의 措置는 美軍의 配置를 變化하는데 따르는 政治的 狀況에 對한 判斷과 評價에 따라 그 「뉴앙스」는 바뀔 可能性이 있지만 極히 脆弱하다고 보는 分野만을 強化하고 其他는 韓國의 잘 組織된 防禦力에 依持한다는 政策基調는 80年代에도 變하지 않을 것이다. 美國은 韓國의 對北傀儡沮止能力이 美國의 軍事裝備에 對한 韓國의 接近度(accessibility)에 크게 달려 있다는 事實을 잘 認識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은 韓國이 要求하는 合理的인 水準의 軍裝備나 이를 위한 資金을 支援할 것이며 防禦用에 局限하는 限 武器供給線의 多樣化 및 在來式武器의 生産이나 技術開發을 妨害하지 않을 것이다.

對北韓 接近의 効果等の 條件에 따라 어느程度 可變的이기는 하나 地上軍 및 支援部隊가 撤収하더라도 空軍을 主樞으로 하는

施設裝備와 人力은 半永久히 韓國에 駐屯할 것이다. 이는 곧 空軍은 별 危險負擔이 없이 韓國防衛뿐 아니라 太平洋의 餘他地域에서 偶發事態가 發生하는 境遇 매우 效果的인 “戰略的 備蓄”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美地上軍의 撤収는 核武器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問題를 同時に 提起한다. 駐韓美軍과 美國의 核武器는 不可分 連結되어 있으므로 美軍이 가면 同時に 核武器도 撤収하는 것이 美國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代案이다. 그러나 이境遇 韓國은 반드시 核開發에 拍車를 加할 것이며 南北對決 狀況속에서 獨自的으로 核武裝한 韓國軍은 北韓의 核開發을 促進할 뿐만 아니라 美國의 西太平洋政策을 威脅하는 가장 深刻한 事態中의 하나이다. (註7) 이상과 같은 最善의 選擇—核武器 撤収案—과 最惡의 條件—韓國의 獨自的 核武裝—사이에 存在하는 美國의 行動範圍는 다른 分野보다 훨씬 制限되어 있는 것도 事實이다. (註8)

核武器에 對한 韓國의 關心은 美國의 防衛公約에 對한 憂慮에 그 根拠를 두고 있다. 그러나 美軍의 殘留가 核에 對한 關心을 遲延시킬지는 모르나 中斷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이 問題

註7. 이에 關하여는 Henry Owen E. Charles L. Schultze, eds., Setting National Priorities: The Next Ten Years (Brookings Institution, 1976) 第2章 및 4章 參照

註8. 核武器와 關聯된 美國側 代案의 範圍와 種類에 關하여는 Leslie H. Brown, op. cit., p. 32 參照

에 관한 美國의 對韓外交는 說得과 壓力, 交渉과 회유, 直接과 間接 등의 複合的인 過程을 거칠 것이며 蘇聯과 中共에게도 美國은 북괴에 같은 自制를 促求하도록 要求할 것이다.

要컨데 核拮散 問題에 관한 美國의 希望은 南北에 다같이 核開發의 過程을 밟을 必要가 없다고 認識하게 하는 政治的 環境을 造成하는 努力으로 表現될 것이다. 이는 南韓에게는 주로 安保에 대한 憂慮를 輕減시켜주는 政策을 위요하여 展開될 可能性이 크며 北韓에게는 國際的 威信 및 經濟的 要求를 非核化의 方法으로 充足시키는 方向으로 展開될 것이다. 이 두갈래의 政策方向을 支配하는 論理는 ①南北間 軍事力均衡, ②段階的 撤軍計劃 및 ③休戰協定을 平和條約으로 代置하는 作業 등의 政策順位를 따라서 展開될 것이다.

바. 主要 参考 文献

- o Brown, Harold, "U.S. Political Defense Structure, "Address to world affairs Council (Los Angeles 1978.2.20)
- o Brown, Leslie H., American Security Policy to Asia Adelphi paper No.132 (London:IISS,1977)
- o Carpenter, Wilham M., E.Young C.Kim,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in Korea (stanford Research Institute, strategic studies Center, 1975)
- o Institute for Asian/Pacific Studies, Security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Occasional paper: Univ. of San Francisco, 1977)
- o Owen, Henry E. Charles L. Schultze, eds., Setting National priorities: The Next Ten Years (Brookings Institution, 1976)
- o Zagoria, D., "蘇聯의 極東戰略", (洪秀原訳)
政經研究 (1978年4月号)
- o 李相禹外, 南北韓關係 東北亞 勢力構造變遷과 韓半島
(国土統一院 政策企劃室, 1978)
- o 河萬璟 "韓半島의 平和와 交叉承認", 外交·安保 第一卷
(外交安保研究院, 1978)
- o 其他: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東亞日報, 한국일보 등

2. 蘇聯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邊情勢觀

(崔昌潤 : 陸士 政治學科 教授)

가. 蘇聯의 對亞細亞政策 : 目標와 現實的 課題

나. 蘇聯의 對亞細亞政策에서의 當面課題

- (1) 對中共 包圍網 形成
- (2) 對美「데탕트」의 追求
- (3) 對日關係 改善
- (4) 北韓과의 紐帶 強化
- (5) 地理的·戰略的 地域의 確保
- (6)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提高

다. 蘇聯의 政策遂行 能力

- (1) 政治的 側面
- (2) 經濟的 側面
- (3) 軍事的 側面

라. 東亞細亞 情勢에 대한 蘇聯의 反應

- (1) 中, 日接近에 關한 蘇聯의 反應
- (2) 美·北韓 接近 可能性에 대한 蘇聯의 反應
- (3) 駐韓 美軍撤収에 대한 蘇聯의 反應

마. 參考文獻

第一卷 第一章 緒言

本書之目的，在於探討我國經濟發展之現狀與未來趨勢。

第一章 緒言

一、研究之動機與目的

二、研究之範圍與方法

三、研究之重要意義

四、研究之組織與結構

五、研究之結論

六、研究之建議

七、研究之參考文獻

八、研究之附錄

九、研究之圖表

十、研究之索引

十一、研究之摘要

十二、研究之謝詞

十三、研究之出版說明

十四、研究之版權聲明

十五、研究之出版時間

十六、研究之出版地點

十七、研究之出版單位

十八、研究之出版經費

十九、研究之出版印刷

二十、研究之出版發行

二十一、研究之出版廣告

二十二、研究之出版目錄

二十三、研究之出版前言

二十四、研究之出版後記

二十五、研究之出版跋語

二十六、研究之出版附錄

二十七、研究之出版索引

二十八、研究之出版摘要

二十九、研究之出版謝詞

三十、研究之出版說明

三十一、研究之出版版權聲明

三十二、研究之出版時間

三十三、研究之出版地點

三十四、研究之出版單位

三十五、研究之出版經費

三十六、研究之出版印刷

三十七、研究之出版發行

三十八、研究之出版廣告

三十九、研究之出版目錄

四十、研究之出版前言

四十一、研究之出版後記

四十二、研究之出版跋語

四十三、研究之出版附錄

四十四、研究之出版索引

四十五、研究之出版摘要

四十六、研究之出版謝詞

四十七、研究之出版說明

四十八、研究之出版版權聲明

四十九、研究之出版時間

五十、研究之出版地點

五十一、研究之出版單位

五十二、研究之出版經費

五十三、研究之出版印刷

五十四、研究之出版發行

五十五、研究之出版廣告

五十六、研究之出版目錄

五十七、研究之出版前言

五十八、研究之出版後記

五十九、研究之出版跋語

六十、研究之出版附錄

六十一、研究之出版索引

六十二、研究之出版摘要

六十三、研究之出版謝詞

六十四、研究之出版說明

六十五、研究之出版版權聲明

六十六、研究之出版時間

六十七、研究之出版地點

六十八、研究之出版單位

六十九、研究之出版經費

七十、研究之出版印刷

七十一、研究之出版發行

七十二、研究之出版廣告

七十三、研究之出版目錄

七十四、研究之出版前言

七十五、研究之出版後記

七十六、研究之出版跋語

七十七、研究之出版附錄

七十八、研究之出版索引

七十九、研究之出版摘要

八十、研究之出版謝詞

八十一、研究之出版說明

八十二、研究之出版版權聲明

八十三、研究之出版時間

八十四、研究之出版地點

八十五、研究之出版單位

八十六、研究之出版經費

八十七、研究之出版印刷

八十八、研究之出版發行

八十九、研究之出版廣告

九十、研究之出版目錄

九十一、研究之出版前言

九十二、研究之出版後記

九十三、研究之出版跋語

九十四、研究之出版附錄

九十五、研究之出版索引

九十六、研究之出版摘要

九十七、研究之出版謝詞

九十八、研究之出版說明

九十九、研究之出版版權聲明

一百、研究之出版時間

一百零一、研究之出版地點

一百零二、研究之出版單位

一百零三、研究之出版經費

一百零四、研究之出版印刷

一百零五、研究之出版發行

一百零六、研究之出版廣告

一百零七、研究之出版目錄

一百零八、研究之出版前言

一百零九、研究之出版後記

一百一十、研究之出版跋語

一百一十一、研究之出版附錄

一百一十二、研究之出版索引

一百一十三、研究之出版摘要

一百一十四、研究之出版謝詞

一百一十五、研究之出版說明

一百一十六、研究之出版版權聲明

一百一十七、研究之出版時間

一百一十八、研究之出版地點

一百一十九、研究之出版單位

一百二十、研究之出版經費

一百二十一、研究之出版印刷

一百二十二、研究之出版發行

一百二十三、研究之出版廣告

一百二十四、研究之出版目錄

一百二十五、研究之出版前言

一百二十六、研究之出版後記

一百二十七、研究之出版跋語

一百二十八、研究之出版附錄

一百二十九、研究之出版索引

一百三十、研究之出版摘要

一百三十一、研究之出版謝詞

一百三十二、研究之出版說明

一百三十三、研究之出版版權聲明

一百三十四、研究之出版時間

一百三十五、研究之出版地點

一百三十六、研究之出版單位

一百三十七、研究之出版經費

一百三十八、研究之出版印刷

一百三十九、研究之出版發行

一百四十、研究之出版廣告

一百四十一、研究之出版目錄

一百四十二、研究之出版前言

一百四十三、研究之出版後記

一百四十四、研究之出版跋語

一百四十五、研究之出版附錄

一百四十六、研究之出版索引

一百四十七、研究之出版摘要

一百四十八、研究之出版謝詞

一百四十九、研究之出版說明

一百五十、研究之出版版權聲明

一百五十一、研究之出版時間

一百五十二、研究之出版地點

一百五十三、研究之出版單位

一百五十四、研究之出版經費

一百五十五、研究之出版印刷

一百五十六、研究之出版發行

一百五十七、研究之出版廣告

一百五十八、研究之出版目錄

一百五十九、研究之出版前言

一百六十、研究之出版後記

一百六十一、研究之出版跋語

一百六十二、研究之出版附錄

一百六十三、研究之出版索引

一百六十四、研究之出版摘要

一百六十五、研究之出版謝詞

一百六十六、研究之出版說明

一百六十七、研究之出版版權聲明

一百六十八、研究之出版時間

一百六十九、研究之出版地點

一百七十、研究之出版單位

一百七十一、研究之出版經費

一百七十二、研究之出版印刷

一百七十三、研究之出版發行

一百七十四、研究之出版廣告

一百七十五、研究之出版目錄

一百七十六、研究之出版前言

一百七十七、研究之出版後記

一百七十八、研究之出版跋語

一百七十九、研究之出版附錄

一百八十、研究之出版索引

一百八十一、研究之出版摘要

一百八十二、研究之出版謝詞

一百八十三、研究之出版說明

一百八十四、研究之出版版權聲明

一百八十五、研究之出版時間

一百八十六、研究之出版地點

一百八十七、研究之出版單位

一百八十八、研究之出版經費

一百八十九、研究之出版印刷

一百九十、研究之出版發行

一百九十一、研究之出版廣告

一百九十二、研究之出版目錄

一百九十三、研究之出版前言

一百九十四、研究之出版後記

一百九十五、研究之出版跋語

一百九十六、研究之出版附錄

一百九十七、研究之出版索引

一百九十八、研究之出版摘要

一百九十九、研究之出版謝詞

二百、研究之出版說明

가. 蘇聯의 對아시아政策 : 目標와 現實的課題

蘇聯의 對아시아政策의 窮極的인 目標은 全아시아에 걸친 覆權 (hegemony) 의 確立이다. 다시 말하면 全体 아시아 國家들을 蘇聯의 모델을 따라 共產化하는 것이 蘇聯政策의 上限線이다. 이러한 目標은 물리적 方法에 의한 勢力擴張이나 共產主義의 이데올로기의 教化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1953年 韓國戰爭의 終結, 1956年 이후 平和共存路線의 標榜, 그리고 1960年代初부터 中·蘇紛爭의 표면화등을 거치면서 이러한 目標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中·蘇紛爭이 격화되면서 蘇聯 對外政策의 下限線인 現在까지 구축된 勢力圈의 安保마저도 危脅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蘇聯 對아시아 外交政策의 現實的目標은 現勢力圈의 安保를 바탕으로 政治, 經濟, 軍事등 多次元的인 側面에서 全아시아에 걸쳐 影響力을 擴大해 나가는 데 있다.

그러나 安保와 影響力 擴大라는 現實的 目標을 追求해 나가기 위해서 蘇聯이 解決해야 할 当面課題는 너무도 많다. 특히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이라는 問題에 觸점을 맞추려 할 때 蘇聯의 對外政策이 해결해야 할 当面課題는 다음의 다섯가지로 說明할 수 있다.

나. 蘇聯의 對아시아政策에서의 當面課題

(1) 對中共包圍網形成

1960年代부터 本格化되기 始作한 中·蘇紛爭은 蘇聯의 對아시아 政策은 勿論 世界戰略을 決定해 주는 가장 중요한 要因中的 하나 가 되었다. 1960年代 中盤까지만 해도 蘇聯外交政策은 西獨과 西部유럽의 問題에 優先權을 두어왔다.

그러나 1969年 아무우르·우수리江에서 蘇聯의 國境守備分遣隊가 中共軍으로 부터 攻擊을 받은 이후로 蘇聯 國防政策의 우선적인 關心은 유럽에서 아세아로 轉換되지 않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相當한 期間동안 蘇聯 外交政策의 주된 關心은 中共에 지향될 것 이며 中共의 國力과 軍事力의 增大는 蘇聯에게 가장 큰 危脅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蘇聯은 現在 全蘇聯軍師團의 約 25%에 達하는 40個師團과 前線에 配置된 全蘇聯戰術空軍機의 25%에 達하는 900대가량이 極東地域에 配置되어 있으며 蘇聯海軍의 約 30%를 太平洋地域에 配置하고 있다. 시베리아, 中·蘇國境, 그리고 太平洋에 配置된 이들 蘇聯軍事力은 美軍보다도 中共을 주된 目標로 하고 있다.

勿論 中共에 비해 蘇聯은 核武器를 위시한 대부분의 質的·量的 軍事力면에서 단연코 優위를 確保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의 當면 하고 있는바, 시베리아와 沿海州, 그리고 海洋方面에서의 地理的인

弱点과 美·日등이 中共을 이용하여 蘇聯에 대한 共同前線을 펼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中共이야말로 蘇聯에게는 무서운 敵國임
이 틀림없다. 더욱기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現實化 되고 있는
中·日의 關係改善 및 平和條約締結을 위한 움직임, 美·中共간의
和解促進, 그리고 最近 關心거리가 되고있는 美·中·日간의 「反蘇
同盟說」 또는 「反蘇統一前線說」등은 蘇聯에게는 危脅적인 國際情
勢의 전개임이 분명하다.

분명히 最近 中·蘇關係의 進전은 惡化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여
겨진다. 금년 2月24日 蘇聯은 中共에 보낸 書翰에서 中·蘇關係
가 심각한 不安을 안고 있다고 지적하고 外交會談을 열어 兩國
關係의 原則에 관한 共同聲明을 發表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中
共은 이에대해 「옛 禍조를 다시 부른대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
고, 蘇聯을 믿을 수 없으니 우선 1969年9月 兩國首相間에 合
意를 본 國境紛爭의 解決原則에 따라 外蒙古와 中·蘇國境에서 蘇
聯軍을 撤収하여 60年代 初期의 狀態로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추세로 보아 中·蘇紛爭이 가까운 將來에 好轉될 것
같지는 않으며 美·中·日간의 關係正常化와 더불어 蘇聯의 對中共
態度는 더욱 예민해질 것으로 여겨진다. 中共은 蘇聯을 가리켜
社會帝國主義니 覆權主義란 말로서 辱罵하고 있으며 蘇聯은 中共을
가리켜 大國排他主義니 漢族의 民族主義라고 비난하고 있다.

最近 中共은 「蘇聯이 覆權主義를 極力 밀고 나감으로써 우리
時代에서 가장 큰 國際的 착취자로, 抑壓者로, 새로운 世界戰爭의

가장 危險한 發源地로 되고 있다」고 非難하였다. 蘇聯은 한편 「北京이 反蘇運動을 벌이는 것은 中共指導者들이 자기들의 覆權主義的·帝國主義的 目的을 이룩하려는 길에 있어서의 주되는 障礙가 蘇聯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非難하였다. 中共副首相 鄧小平은 今年 3月23日 西獨基社同盟 (CSU) 議長인 「프리드리히 지머만」과의 會談에서 蘇聯의 膨脹을 막기 위해 아시아에서는 中共이 日本과 協力해야하며 西方에서는 美國과 西歐 國家들이 協力해야 한다고 했다. 요컨대 이른바 反覆權統一前線에 따라 蘇聯의 勢力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나라와도 손을 잡으려는 努力을 中共이 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이었다.

요컨대 中·蘇紛爭과 關聯하여 蘇聯이 追求하는 目標은 매우 多次元的일 수 밖에 없다. 즉 蘇聯은 對美·日和解促進과 아시아諸國 특히 印度와의 協力強化로 對中共封鎖網形成을 緊요하게 追求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蘇聯은 西部유럽 國家들과의 화해를 促進함으로써 힘의 兩面分散을 피하고 아시아에로 힘을 集中하여 왔다. 美國에 대하여도 和解를 促進함으로써 自國의 国力伸張을 圖謀하는 한편, 美·中共間의 協力關係에 제동을 가하며, 日本과의 關係改善으로 日本의 技術, 勞動力 및 資本의 시베리아投入을 유치하여 美·中共關係改善에 대항할수 있는 勢力均衡의 同伴者로서 日·蘇의 결속을 摸索하고 있다.

蘇聯은 또한 印度와의 平和條約締結을 推進함으로써 印度洋으로의 進出基盤을 마련하고 이 地域에 海軍基地를 確保함으로써 地中海,

페르시아만, 그리고 印度洋을 연결할 수 있는 勢力圈形成을 推進하고 있다.

蘇聯은 또한 大部分의 아시아 國家들과 雙務的인 外交的·經濟的關係 樹立을 繼續하여 오면서도 아시아 國家들이 1969年 브레즈네프가 제창한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을 받아들일도록 하기 위한 努力을 繼續하고 있다.

軍事的 側面에서 본다면 蘇聯은 極東 軍事力을 더욱 增強시키는 方向으로 나아갈 것이며 日本에 대한 軍事的 示威을 強化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蘇聯의 軍事力增強은 特히 海軍力에 있어서 두드러졌다. 1971~72年 從부터 수세기동안 美·英이 거부해온 地中海와 페르시아만 및 印度洋을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다.

그리고 越南敗亡을 전후하여 東南亞에서의 蘇聯 海軍力도 급격히 增加하였다. 日本 防衛庁에 따르면 지난 1~2年동안 매년 5萬~20萬 ton씩 늘려 核潛水艦의 劃期的인 增加가 있었고 現在도 蘇聯은 많은 艦艇의 米사일化를 꾀하고 있다.

1977年 下半期이후만을 보더라도 蘇聯은 米사일순양함 1隻과, 米사일초계정 1隻 및 輸送船 4隻등을 東北亞艦隊에 追加 配置한데 이어 새로히 最新型 米사일 순양함 및 米사일 구축함 1隻을 配置하였다. 뿐만아니라 1978年内에는 4萬 ton급 航母 민스크호를 配置할 것이며 80年代에는 키에프급 航母를 配置할 것으로 예상된다.

空軍力도 增強되었다. 日本 防衛庁에 따르면, 蘇聯은 히로시마에

投下된 原爆보다 10배나 더 강한 2百50萬 ton 의 핵탄두를 運搬할 수 있는 新型 AS6 「킹피시」空對地미사일을 東北亞에 配置했다. 그 위에 가공할 초음속전략폭력기 「백파이어」도 멀지않아 이 地域에 配置될 것이다.

요컨대 이 모든 蘇聯의 政治的·軍事的 努力은 窮極的으로 아시아에서 中共의 勢力擴張을 저지하고 封鎖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 對美데탕프의 追求

데탕프를 追求하는 蘇聯의 底意가 어떻게 간에 蘇聯의 指導者 들은 1970年代에 들어오면서 美國과 데탕프의 중요성을 繼續 되 풀이해서 強調하여 왔다.

1973年 8月 15日 「알마·아츠」(카작스탄共和國의 首都)에서 브레즈네프의 演說은 데탕프가 오래 繼續될 必要性이 있음을 暗示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 --- 條約, 合意 및 理解의 전반적인 體系가 實現되었으며 이러한 것 들은 社會主義國家들과 資本主義國家들 사이에 平和롭고 --- 建設적인 關係를 樹立하기 위한 기초를 닦아 놓았다. 이와같은 發展들은 現在의 데탕프가 그 어떤 一時的인 것이 아니라 始作이라는 事實에 希望을 걸 수 있게하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로미코 蘇聯外相도 平和共存과 데탕트가 적절하고 바람직하다는 事實을 機會있을 때 마다 언급해 왔다.

1976年 第25次 蘇聯共産党大会에서의 브레즈네프의 演說도 相當한 部分이 外交政策에 관한 것인데 同演說은 第24次 党大会이래 자기의 指導下에서 追求되어 온 平和共存政策을 正当化하고 繼續하려고 하는 의도를 分明히 하고 있다. 특히 브레즈네프는 平和共存이 蘇聯에게 「持統的인 重要性」을 갖다 주었다고 強調하였는데 브레즈네프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서 世界는 좋은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다」는 말속에 잘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 이와같은 언급들은 蘇聯의 外交政策에서 東·西데탕트 특히 對美和解가 얼마나 중요한 位置를 점하고 있는가를 미루어 알 수 있게 한다.

蘇聯이 美國과 더불어 데탕트를 追求해야 할 이유들은 多次元的인 側面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現代武器體系의 維持·開發·發展을 위한 엄청난 經費問題, 戰略武器의 競争에 따르는 危險負擔과 經費問題, 深化되어가는 中·蘇對決, 西歐에서 美國 및 西歐諸국들과 關係를 正常化하고 緊張을 解消시켜야 할 要求, 自由의 經濟技術問題解決을 위해서 美國을 위시한 西方諸국으로부터 技術 및 借款을 必要로 하는 當面課題, 燃料, 資源 및 環境등과 같이 어느 一國의 单独 努力으로만 解決될 수 없는 汎世界的 問題의 增加등을 들 수 있다.

이상과같은 견지에서 볼 때 對美데탕트는 蘇聯 外交政策의 또

하나의 当面課題라고 할 수 있다.

(3) 対日關係改善

1960年代 後半期부터 日本의 政治的·經濟的 力量이 크게 擴張됨에 따라 日本은 오늘날의 東아시아 勢力均衡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특히 美·蘇·中共등의 強大國關係에서 日本이 누릴 수 있는 外交的 自主力量과 增大一路의 国力때문에 東아시아에서 蘇聯의 外交政策目標은 日本과의 問題에 役점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對日關係에 관한 한 蘇聯의 重要 利益은 東아시아의 勢力均衡에서 日本이 차지하는 役割과 蘇聯에 대한 日本의 經濟的 重要性에서 論해질 수 있다. 무엇 보다도 勢力關係面에서 蘇聯이 對日關係에서 追求하는 目標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① 對中共封鎖를 위해 日本으로부터 可能한 모든 協力을 얻어 내려는 것.

② 美·中共間의 關係를 制限할 수 있도록 蘇·日間의 關係를 強化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日本의 中立을 유지시켜보려는 것.

③ 日·中共間의 關係가 密接해 지지 못하도록 制동을 가하려는 것.

④ 美·日間의 緊密한 紐帶에 制동을 加하거나 이완시키려는 것 등이다.

특히 解決의 展望이 보이지 않은채 惡化되어가는 中·蘇紛爭과 美·中·日間의 이른바 「南方三角關係」의 대두가능성은 蘇聯으로 하여금 日本의 중요성에 더욱 큰 關心을 쏟도록 하고 있다.

蘇聯은 또한 시베리아의 開發을 위해 日本의 技術과 勞動力 그리고 財政上的 協調를 必要로 하기 때문에 經濟적으로 뿐만아니라 政治적으로도 對日接近을 強化해야 할 必要性을 느끼고 있다.

日本과의 經濟的 協力은 蘇聯에게 두가지 면에서 重要的 利益을 提供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蘇聯의 資源과 輸出品을 위한 안정된 市場의 提供과 蘇聯의 經濟成長을 위해 重要時되는 日本의 先進技術導入을 可能케 하여 주는 것이다.

蘇聯은 또한 시베리아開發을 위해 日本의 參與를 推進함으로써 다음과같은 政治的 考慮들을 念頭에 들수 있다.

① 日本과의 關係를 密接히 함으로써 日本·中共間의 關係增進, 或은 日本·美國間의 緊密한 關係에 계동을 가할 수 있다.

② 北方領土의 반환을 要求하는 日本의 繼續되는 主張을 다른 方向으로 轉換시킬 수 있다.

③ 소위 「露·日資源同盟」을 推進함으로써 日本의 對美依存 및 對美協調關係를 이완시킬 수 있다.

④ 시베리아開發을 促進함으로써 中共에 대한 蘇聯의 防衛力を 強化시킬 수 있으며 아시아方面에서의 蘇聯의 国力을 신장시킬 수 있다.

요컨대 對日關係에서 제기되는 이상과같은 蘇聯의 利害關係들을 念頭에 들때, 對日關係改善은 蘇聯의 또 하나의 外交的 當面課題가 아닐 수 없다.

(4) 北韓과의 紐帶強化

蘇聯의 對東北亞政策이라는 側面을 念頭에 들 때, 蘇聯 外交의 또 다른 當面課題로 北韓과의 紐帶維持 및 強化의 問題를 擧올 수 없다.

蘇聯이야말로 北韓政權의 成立과 維持를 위해 必須不可決한 物質的 後見者이자 精神的 支柱役割을 하여왔다. 蘇聯의 政體와 이데올로기는 그대로 北韓에 이식되었고 蘇聯은 6.25의 破滅直前에서 北韓을 구출하였다. 뿐만아니라 1945年으로부터 1970年에 이르는 四半世紀동안 蘇聯이 提供한 經濟援助는 北韓이 全体共産友邦으로부터 받은 經濟援助額中 47%를 占有하고 있으며 莫大한 軍事援助의 提供은 北韓의 軍事力增強과 安保維持를 위해 주축을 이루어 왔다. 특히 1961年 7月 모스크에서 締結한 軍事同盟인 「北韓·蘇聯友好協力 및 相互 援助條約」은 異議없이 두번씩이나 自動延長되어 지금껏 有効하다.

蘇聯의 對東아시아政策에서 北韓이 차지하는 重要性은 北韓의 地政學的 位置와 中·蘇紛爭의 次元에서 北韓이 占有하는 戰略的 價値를 蘇聯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中·蘇紛爭이 直接 武力衝突로 化할 可能性은 現시점에서 極히 적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일 中·蘇戰爭이 터지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北韓은 中·蘇사이에서 極히 重要的 戰略的 價値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形態이든 中·蘇戰爭이 발발했을 경우, 蘇聯이 北韓에서 影響力을 상실하였다고 한다면 中共은 다음과같은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① 中共은 蘇聯의 沿海州地域을 攻擊하여 極東蘇聯軍의 進出기지를 封鎖, 威脅, 破壞할 수 있다.

② 黃海의 安全權을 確保함으로써 主要 海岸地域에 대한 海上으로부터의 威脅을 제거할 수 있다.

③ 北韓을 中繼基地로하여 東海로 進出함으로써 蘇聯의 太平洋艦隊에 直接的인 威脅을 가할 수 있다.

④ 美国이나 日本이 中·蘇戰爭으로 이들을 취하거나 中共에 不利하게 蘇聯과 連結되는 것을 北韓을 완충지역으로 차단할 수 있다.

반대로 蘇聯이 만일 北韓에서의 우위권을 確保 할 수 있다면 蘇聯은 다음과 같은 決定的인 이점을 누릴 수 있다.

① 蘇聯은 北韓으로부터 滿洲方面으로 威脅을 加하거나 直接的인 軍事行動을 취함으로써 시베리아, 外蒙古 및 沿海州에 駐屯한 蘇聯軍과 더불어 中共의 戰略産業中心地인 滿洲를 三面에서 위협하거나 攻擊하는 것이 可能하게 된다. 즉 滿洲에 관한한 北韓만

確保한다면 對中共 包圍網結成이 可能하게 된다.

② 만일 蘇聯이 北韓을 掌握하고 있다면 黃海의 制海權確保에 決定的으로 有利하며 그렇게 되면 旅順과 上海에 기지를 둔 中共의 北洋艦隊의 威脅 내지는 封鎖는 勿論 中共海岸을 威脅할 수 있다.

③ 極東蘇聯軍의 가장 취약지역인 沿海州로의 中共軍의 威脅과 進出을 제어할 수 있다. 왜냐하면 北韓에서 우위를 確保할수 있는 蘇聯은 中共軍의 배후를 直接 차단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北韓은 蘇聯의 또 다른 아시아의 盟邦인 蒙古와 더불어 없어서는 안될 極東에서의 先驅기지이며 緩衝地이다. 지난 四半世紀 동안 中·蘇의 틈바구니에서 北韓이 接近과 疎遠을 되풀이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蘇聯이 援助와 支援을 繼續하여 온 蘇聯·北韓關係의 歷史는 北韓의 政治的, 戰略的 위치가 蘇聯의 對東아시아政策에서 얼마나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이와같은 견지에서 볼 때 蘇聯이 對韓半島政策을 決定함에 있어서 北韓의 利益을 크게 해치거나 北韓의 反對를 무릅쓰고 強行할 可能性은 極히 稀薄하다. 北韓의 反應을 무시한 蘇聯의 政策이 北韓共產統治体制의 正統性에 타격을 주고 國內外的으로 金日成体制의 위신이 損傷을 입게되면, 北韓은 이에 대한 報復으로 中共에 密着할 可能性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면 蘇聯이 第2次大戰이래 東아시아에서 구축한 勢力均衡版圖는 중대한 威脅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蘇聯이 不必要하고도 危險한 게임을 할 可能性은 稀薄한 것이다. 특히 金日成이 蘇聯을 비롯한 共產國家들의 對韓接近可能性에

대해 얼마나 예민한가 하는 예가 1973年 여름 蘇聯当局이 韓國의 유니버시아드大會 參加를 許容하는 제스처를 보이자 北韓이 同大會의 參加를 단호히 보이코트 한데서 여실히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最近에 이르러 北韓의 對中共 傾向경향은 蘇聯 指導者들에게 매우 예민하게 認識되고 있는 것 같다.

1975年 4月 金日成은 中共을 訪問하고 이어 東歐諸國을 訪問하였으나 蘇聯은 訪問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77年 9月 金日成은 티토 유고大統領이 평양 訪問을 환영하는 연설에서 中共이 主張하고 있는 「反覆權」과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는 「反支配主義」라는 말을 처음 使用하였다. 또한 最近의 베트남. 캄보디아 國境紛爭에서 北韓은 中共과 더불어 캄보디아를 支援하였다.

그러나 蘇聯은 北韓이 蘇聯으로부터의 援助가 없이는 당면한 經濟的 어려움과 外債問題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北韓의 對中共接近을 계동하고 있다. 蘇聯에게만 해도 北韓은 約 8億弗의 負債를 지고있는데 現在로서는 償還能力이 不足한 것으로 判斷되고 있다. 또한 지금 北韓의 16個에 이르는 大單位工場이 蘇聯의 技術援助에 의해서 建設되고 있거나 가동되고 있으며 이밖에 北韓의 工業은 石油를 비롯해서 蘇聯이 供給하는 援助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 韓國의 自主國防計劃과 더불어 韓國과의 軍備競爭에 対応하기 위해서도 北韓은 蘇聯으로부터의 軍事的, 技術的支援을 요하고 있다.

이런기 때문에 蘇聯은 最近까지도 北韓이 中共쪽으로 경사할 움직

임을 보이던 그들에 대한 蘇聯의 援助를 상기시키곤 했다.

지난 1月 18~22日의 5日間 蘇聯共産黨 政治局員인 「쿠나에프」가 이끄는 黨 및 政府使節團이 평양을 訪問하여 브레즈네프의 親書를 金日成에게 傳達하고 레닌勳章을 달아 주었는데 그 주된 目的도 北韓의 對中共편향을 경고하고 支援을 約束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이번 訪問은 1970年8月 蘇聯閣僚會議副議長 「마주로프」를 團長으로 하는 8.15 慶祝使節團이 평양을 訪問한 以後로는 7年만에 처음있는 蘇聯고위사절단이다.

이번 평양 방문시 쿠나에프는 歡迎집회에서 北韓의 態度에 따라 蘇聯의 北韓에 대한 援助가 훨씬 增大될 수 있다고 시사한바 있다. 그리고 訪問後 평양과 모스크바에서 서로가 따로 發表한 같은 內容의 報道는 「兩側의 協調를 더욱 發展시키는데 對해서 意見을 交換했으며 몇가지 절박한 國際問題에 對해서 討議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協調」라는 말을 蘇聯의 增援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北韓과의 關係維持 및 強化는 東아시아에 관한 한 蘇聯의 또 다른 外交的 課題이다.

(5) 地理的, 戰略的 地域의 確保

蘇聯 外交政策遂行에 있어 地理的, 地政學的 要素의 重要性은 오래전부터 強調되어왔다. 蘇聯의 長期戰略計劃은 蘇聯이 거대한 大

陸國이라는 地政學的인 要素를 考慮해서 樹立되며 오늘날까지 世界의 도처에서 蘇聯이 보여준 政治的 野心은 地政學的인 要因을 重要시여기던 러시아의 傳統的 外交政策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代表的인 地政學的 命題中의 하나는 海洋으로의 進出口 마련이 蘇聯 外交政策의 目的과 策略에 影響을 미치는 가장 確實하고도 恒久的인 要素라는 점이다. 맑스·레닌主義 이데올로기의 採択이나 現代 軍事科學의 發達도 이와같은 地政學的 要素의 重要性을 變更시키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黃海, 東海, 말라카海峽, 印度洋, 東南亞, 韓半島 등을 中心으로 한 아시아諸國과의 繼統的인 紛爭도 根本的으로 海洋으로 나아갈 수 있는 出口을 얻기 위한 傳統的인 蘇聯의 欲求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아시아와 韓半島에 관한 한 蘇聯의 또 다른 地政學的인 要求는 蘇聯의 太平洋艦隊의 問題와 關聯되어 있다.

蘇聯의 太平洋艦隊가 遂行하는 重要技能은 다음의 네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 ① 蘇聯의 極東地上軍 및 空軍을 支援하는 것.
- ② 蘇聯의 아시아에서의 外交的, 政治的 努力을 側面支援하는 것.
- ③ 太平洋 및 印度洋으로 進出할 수 있는 海洋路를 確保하는 것.
- ④ 地中海 - 印度洋 - 太平洋에 連하는 美國의 (部分的으로 日本도 包含) 海洋交通路를 監視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蘇聯이 極東地域에 갖고 있는 海軍基地인 「페트로파브로스크」, 「소비에트카야가반」,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을 여러가지면에서 자연적인 不利点들을 갖고 있다는데에 問題가 있다. 캄차카 半島에 자리잡고 있는 「페트로파브로스크」는 蘇聯의 主潛水艦基地이나 12월에 있어서 3~4個月間 凍氷하기 때문에 碎氷船에 의한 除氷作業을 필수로 하는 港口基地이다. 勿論 캄차카山脈때문에 바람과 안개로부터 保護를 받는 이점을 갖고는 있으나 同港口는 너무 遠거리에 고립되어 있어서 補給에 困難을 느끼는 不利点도 있다. 사하린 맞은편에 있으며 「블라디보스톡」에서 北方으로 500 마일에 위치한 「소비에트가야 가반」은 좋은 港口施設을 갖추고 있어 모든 種類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潛水艦基地이나 12월에서 3월까지 얼어서 除氷作業을 必要로 하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의 가장 큰 問題는 안개인데 7月 한달만 해도 22日간이나 안개로 고통을 받고 있다. 太平洋艦隊의 基地가 있는 「블라디보스톡」은 一年에 85日 程度는 안개가 끼는 곳이며 12月부터 3個月間 결빙되는 港口이다. 이 海軍基地의 가장 큰 약점은 이곳으로 出入하는 모든 接近 通路가 日本에 接해 있어서 (알고, 흔히 얼음이 어는 「타타르」海峽을 제외하고는) 日本과 美海軍의 監視下에 있으며 有事時엔 기뢰등의 부설로 쉽게 封鎖당할 수 있다.

蘇聯의 海軍力이 太平洋과 印度洋으로 進出할 수 있는 海峽의 問題도 蘇聯에게는 重要한 地政學的 課題로 등장한다.

특히 아시아에 관한 한, 「블라디보스톡」에 司令部를 두고 있는 蘇聯의 太平洋艦隊가 太平洋으로 빠져나오기 위하여 使用될 수 있는 出口은 沿海州와 사할린 사이의 타타르海峽, 사할린과 北海島사이의 소야海峽, 北海島와 혼슈우 사이의 쯔가르海峽, 그리고 大韓海峽의 네개 海峽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 네개의 海峽中에서 가장 安全度가 높은 海峽으로는 타타르海峽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海峽은 水深이 比較的 얕고 겨울철에는 凍結될 뿐 아니라 迂回에 따른 航路의 지나친 연장 때문에 경제성이 낮은 결점을 갖고 있다. 소야海峽과 쯔가르海峽은 타타르海峽보다는 훨씬 많은 자연적 利點을 갖고 있으나 이 두 海峽은 美·日海軍의 집중적인 감시와 統制下에 놓여 있는 약점이 있다.

이렇게 볼 때 蘇聯이 가장 重要時 여기고 있는 곳은 大韓海峽일 것이라는 判斷이 成立된다. 大韓海峽은 蘇聯艦隊가 太平洋으로 進出할 수 있는 關門일 뿐만 아니라 東南아시아와 印度洋으로 進出하는데 最短距離를 提供하고 있다. 勿論 美·日海軍과 韓國海軍은 同海峽을 감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 幅이 넓기 때문에 (23 mile), 소야, 쯔가르海峽에 비해 좋은 條件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때 地理的·戰略的 重要地域에 蘇聯의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蘇聯 外交政策의 또 다른 課題가 아닐 수 없다.

(6)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提高

蘇聯 外交政策에 관한 어떠한 論議도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와 관련 命題들을 도의시할 수 없다. 하나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命題는 맑스·레닌主義의 政治原理가 蘇聯 外交政策의 目標, 政策決定過程, 그리고 政策決定者의 意識構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支配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勿論 蘇聯 外交政策決定者들의 意識構造가 確實적으로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겠으나 맑스·레닌主義의 理想과 教理들은 어느정도 상수적인 共通分母로 作用하고 있음을 考慮하여야 한다.

David Forte 의 한 연구결과와 같이 「蘇聯의 이데올로기는 蘇聯 外交政策과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다 - - - 그리고 根本적으로 國家利益을 위한 단순한 哲學的 合理化만은 아니다」고 한 점을 명심할 必要가 있겠다. 그리고 JAN F Triska와 Davia D Finley 의 또 다른 연구도 參照할만하다. 즉 이들은 맑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의인 요소가 政策決定者들이 考慮하는 「時間範圍」와 政策의 性格에 따라 서로 다른 影響을 미친다고 主張하였다.

즉 第22次 蘇聯共産黨大會의 資料들을 內容分析함으로써 蘇聯外交政策에 있어서 이데올로기의인 教理의 影響을 研究한 그들은 長期計劃이나 期待 또는 廣範圍하고 一般的인 外交政策에 관한 한 이데올로기의 影響은 높은 반면에 短期政策, 慣例的인 政策決定 및 위기시의 決定들의 경우 그 影響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蘇聯의 指導者들이 끊임없이 國內外的으로 보여주는 宣傳과 發言은 共產主義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繼續 強調하여왔다. 緊張완화의 와중에서도 蘇聯은 항상 資本主義世界에 대한 이데올로기의 敵對態度를 견지하고 있으며 西方과의 궁극적 對決을 전제로 하는 맑스·레닌主義의 敎理를 強調하고 있다.

1973年初 蘇聯의 美國問題研究所長 아르바토프는 「資本主義와의 關係는 언제까지나 鬪爭關係이다. 成功的인 關係正常化나 緊張완화가 있게 되더라도 根本的인 問題는 鬪爭의 산물이 무엇이냐 하는데 있다」고 말하였다. 브레즈네프 자신도 1976年 2月 第25次 蘇聯共産黨大會의 開會演說에서 「우리는 데탕트가 平和로운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建設을 위해서 보다 유리한 條件을 조성하기 위한 方途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秘密로 하고 있지 않는다」고 역설하였다.

다. 蘇聯의 政策遂行能力

(1) 政治的 側面

브레즈네프를 頂点으로하는 蘇聯 政治에 있어서의 勢力構造는 지난 10餘年동안 繼續 安定勢를 維持하고 있다. 1964年 후르시초프의 失脚後에 브레즈네프·코쉬긴·포드고르니 三人의 集團指導體制로 出堯은 하였으나 그후 코쉬긴과 포드고르니의 權力은 繼續 감소되어진 반면에 書記長 브레즈네프 一人의 權力構造가 強化되어왔다.

특히 1977年 5月 新憲法이 確定된후 브레즈네프가 포드고르니의 後任으로 最高會議幹部會議議長職까지 兼職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브레즈네프體制」는 確固해 졌다.

勿論 브레즈네프가 72歲의 高齡이라는 점을 考慮한다면 그가 權力을 이양해야 할 時間이 서서히 닥아오고 있기는 하지만 過去처럼 匪의 숙청을 통한 政權交替는 이이상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가 健康만 許諾한다면 党中央委員會나 政治局員들이 구태어 그를 다른 人物로 代替하려고 해야 할 特別한 理由가 없다. 또 그가 健康上 理由로 辭任한다든가 病死한다고 하더라도 權力交替는 比較的 平和 스러울게 進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現在 政治局이나 党中央委員會에서 不和가 있다는 아무런 証 拠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國內의 政治的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서 海外에서 冒險을 해야 할 理由도 없는 것 같다. 結局 現 브레즈네프

体制의 維持·安定·強化를 위해서는 對外政策에서 冒險이나 파격적인 行動을 취하기 보다는 現狀維持를 基盤으로하여 現在 追求하고 있는 對美, 對西方대당뜨政策을 착실히 推進하여 나가는 것이 上策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中共에 對항하여 共產陣營內에서 主導權을 掌握하기 위해서는 第三世界國家들에 對한 革命支援같은 것 보다는도 外蒙古, 큐바를 包含한 東歐諸國의 結束에 主眼點을 두는 것이 有利할 것으로 여겨진다. 最近 蘇聯이 (1978年3月2日) 유럽諸國과 外蒙古 및 큐바를 包含한 共產黨秘書會議을 열어 勢力圈 公高화 작업을 한 것을 그 한 예이다.

(2) 經濟的·側面

蘇聯經濟構造의 特徵은 嚴格한 國家計劃經濟이다. 自本主義社會의 市長經濟에 비해 計劃經濟는 급격한 景氣上의 變動이 없는 것이 特徵이다. 따라서 蘇聯經濟가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기는 하지만 큰 變動없이 比較的 安定勢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蘇聯의 成長하는 生産性과 效率性은 다른 資本主義工業國家에 비해 別로 뒤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蘇聯의 國威와 國力은 繼續 上昇될 것이다. 지난 몇 10年동안 蘇聯의 生産性은 놀라운 速度로 繼續 成長하였다. 1955年 GUP는 美國의 36% 밖에 안되었으나 1965년에는 46.5%로 增加했고, 1975년에는 55%에

이르렀는데 앞으로 그 %는 繼續 增加될 것으로 보고 있다.
GNP/Cap 면에서 본다면 1970년에 1,800 弗이었고, 1975년에
2,220 弗이었는데 美國은 各各 3,062 弗과 4,725 弗이었다.
蘇聯의 對外經濟關係가 가장 活潑한 地域은 COMECON 國家들과의
關係에서이다.

(3) 軍事的 側面

1968년에서 1969년에 蘇聯은 그들의 地上軍을 中·蘇國
境地域에 投入하기 始作했다. 1977년까지 約 40個의 師團(蘇
聯 地上軍의 約 25%에 가까운 숫자)이 中·蘇國境地帶에 配置되
었다. (1965년에는 不過 15個師團이었음). 900餘台的 戰術航空
機(蘇聯의 全 戰術航空部隊의 25%)가 역시 이곳에 配置되어 있
다. 그러나 이와같은 增強이 유럽에 配置된 蘇聯 軍事力을 감소시
킨 것은 아니다. 오히려 量과 質面에서 유럽과 아시아의 蘇聯軍
모두가 補強된 것이다.

太平洋과 印度洋에 配置된 蘇聯 海軍은 아시아에 配置된 蘇聯 地
上軍보다 더 直接的인 影響力을 發揮하고 있다. 現在 太平洋에는
蘇聯 海軍力의 거의 30%가 配置되어 있으나 다른 地域의 蘇聯艦
隊나 美國의 太平洋艦隊에 비하면 그活動이나 規模가 消極적인 편이
다. 最近에 알려진 바로는 蘇聯의 太平洋艦隊가 비록 量的으로 增
加는 되었으나 新型의 선박은 다른 地域 艦隊에 조치된후에 提供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海軍의 飛行機로 配當된 「백파이어」
爆擊機같은 더 좋은 飛行機가 配置될 可能性이 크다.

空對地 對艦 미사일로 무장된 「백파이어」 爆擊機는 하와이 南
쪽 地域에 있는 美航空母艦에 까지도 장거리 空中爆擊의 威脅을
주는 深刻한 武器로 여겨지고 있다.

라. 東아시아情勢에 대한 蘇聯의 反應

(1) 中·日 接近에 관한 蘇聯의 反應

現在 拳論中인 中·日接近은 두가지 국면에 쫓점이 주워지고 있다 첫째는 民間레벨에서의 中·日長期貿易協定에 관한 것이고 다음은 中·日平和條約締結問題이다.

今年 1月 16日 北京에서 있었던 中·日貿易協定은 비록 民間레벨의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政府레벨에서의 中·日平和條約締結의 門을 열고 있다는 점, 中共의 門戶가 점차 개방되어 東南亞등지의 影響力이 擴大될 것이라는 점등을 고려할 때 아직 공식적인 反應은 없었지만 蘇聯의 認識은 예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中·日平和條約의 締結可能性은 ① 中共으로서는 反蘇統一戰線에 日本을 끌어 드리려고 한다는 점, ② 東南亞에서 힘을 줄여가고 있는 美國으로서는 中共, 日本이 힘을 합쳐 蘇聯을 견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美國의 世界戰略과 一致한다는 점, ③ 본질적으로 中·日間의 政治的 密着을 가져와 美·日·中共間의 三角協力體制로의 發展 可能性을 안고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蘇聯의 反應은 매우 예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금년 2月21日 「플리얀스키」駐日蘇聯大使는 후쿠다首相을 訪問하여 反覆權條項이 挿入된채 日·中共平和條約이 締結되는 경우, 日·蘇關係는 크게 損傷될 것이라는 경고조의 브레네프의 親書를 傳達하였다.

그러나 中·日平和條約締結이 이미 돌이킬수 없는 狀態에 와 있는 데다가 東南亞諸國은 이미 中·日平和條約을 기정사실로하고 外交活動을 展開하고 있으며 日本으로서는 中·日平和條約을 먼저 체결하고 對蘇平和條約締結交渉에 나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蘇聯의 반발이 予想했던 것 처럼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蘇聯으로서는 앞으로의 事態가 蘇聯에게 極히 불리하게 진전될 것을 憂慮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아세아·太平洋 地域에서의 軍事力 특히 海軍力 增強, 日本에 대한 軍事力示威의 強化등을 考慮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中·日接近에 대하여 蘇聯과 더불어 민감한 反應을 보이는 나라는 自由中國일 것이라는 점을 考慮한다면 蘇聯과 自由中國과의 앞으로의 關係가 매우 부드러워질 것이라는 점도 생각할 수 있다.

(2) 美·北韓接近可能性에 대한 蘇聯의 反應

最近에 이르러 急進展되고 있는 美·北韓接近可能性에 대하여 蘇聯은 아직도 공식적 態度表明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三者會談」 또는 「美·북괴」當事者會談등의 可能性에 대하여 蘇聯이 거부적인 態度로 나올 수 있는 可能性은 現在로서 매우 稀薄하다.

現在 東아시아에서의 國際關係로 보아 美·北韓間의 關係增進이 地域의 現狀을 破壞할 程度로 急進展될 可能性은 전혀 없다. 따라서 美·北韓接近趨勢는 東아시아는 勿論 全世界的인 次元에서

蘇聯의 利益을 해치고 있지는 않는것 같다. 現在 대두된 三者會談 或은 美·北韓 單獨接觸說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休戰協定 署名 國으로서의 中共의 既得權이 認定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蘇聯으로서는 어느程度 安心을 할 수 있다. 「四者會談」이 이루어져 中共이 參與하고 蘇聯이 排除되는 境遇나, 「六者會談」이 이루어져 中共, 日本등이 參與하여 蘇聯의 相對的인 影響力이 弱化되는 境遇에 비한다면 「三者會談」 「美·北韓」 單獨會談은 蘇聯에게 有利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美國과 直接 對話를 함으로써 韓半島問題를 美·蘇間의 問題로 어느程度 수렴시키는 것도 可能하다.

뿐만 아니라 蘇聯은 北韓의 強力한 反撥을 안받으면서 韓國과의 接近을 摸索하는 것도 可能하게 될 것이다. 最近 KAL機事件에서 蘇聯이 보여준 好意는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韓國人의 反蘇感情을 刺戟할 行動은 안하려고 한다는 事實이 KAL機事件의 處理課程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그러나 보다 長期的인 側面에서 볼때 蘇聯은 다음과같은 면을 憂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즉 韓半島에서 平和共存이 정착되어감에 따라 北韓이 蘇聯으로부터 軍事的·經濟的·政治的 支援을 얻으려는 要求는 감소될 것이고 文化的·歷史的·地理的으로 가까운 中共과의 紐帶가 自然히 깊어질 念慮이다. 또한 韓半島에서의 平和定着은 美·中共關係, 日·中共關係의 接近促進 뿐만 아니라 日·北韓, 美·北韓간의 關係도 促進시켜 結局 北韓은 美·中·日體制에 接近시킬 可能性도 念慮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駐韓美軍의 撤収에 대한 蘇聯의 反應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은 蘇聯의 對아시아政策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部分은 아니다. 그러나 韓半島의 地政學的 위치, 中·蘇紛爭, 韓半島를 둘러싼 強大國간의 勢力均衡의 問題를 念頭에 들 때 韓半島는 蘇聯의 對아시아戰略에서 重要한 위치를 占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駐韓美軍의 撤収는 東아시아에서의 國際勢力構造上에 變化를 의미하기 때문에 蘇聯의 重要 關心事가 틀림없으며 蘇聯은 여기에 對應策을 마련할 것임이 分明하다.

勿論 駐韓美軍撤収에 대하여 蘇聯이 어떠한 對應策을 마련하고 있다는 確実한 證據는 아직 없으나 그동안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駐韓美軍撤収問題에 대한 모스크바에서의 發言과 宣傳등으로 미루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이 想定될 수 있겠다.

첫째로 中共과 더불어 더욱 競爭的으로 北韓을 支援할 可能性이 크다. 만일 駐韓美軍의 撤収에 便乘하여 北韓이 對美, 對日 政治的·經濟的 接近에 어느정도 成果를 거두면서 그 國際的 位置가 上昇한다면 中·蘇紛爭에서 北韓의 役割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蘇聯은 지금까지보다 더 큰 관심과 지지의 態度로 北韓을 對하여야 할 必要性을 느끼게 될 것이다.

1977年7月 下旬 韓·美國防長官會議에 대한 蘇聯의 反應은 이와같은 趨勢를 어느程度 說明해주고 있는 것 같다.

즉 「프라우다」와 「이즈베스차」, 官營 「모스크코放送」 그리고 國防省機關紙 「赤星」등은 韓美安保協議會가 끝난 7月26日부터 연 일 解説과 論評記事를 실고 美国은 駐韓美地上軍 撤収에 關聯된 補完措置란 구실아래 駐韓美軍事基地들을 사실 상 중전보다 더 強 化하려하고 있으며 韓國에 대해 最高 80億弗 相當의 新型武器등 을 提供할 計劃을 세우는 등 撤軍計劃自体를 有名無實하게 함으로 써 世界輿論을 기만하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

이들 매스컴들은 또한 北韓에 대한 그들의 지지 입장을 強調하는 한편 「蘇聯은 앞으로도 韓半島平和를 교란하려는 어떠한 勢力에도 持續적으로 대적해 갈 것」을 다짐했다 . 이와같은 蘇聯의 論調는 美軍撤収와 이에 따른 對韓軍援強化등을 北韓에 대한 威脅으로 強 調하며 이와 關聯 北韓의 對蘇依存의 不可避性을 指摘하는 것으로 解釋되고 있다 .

둘째는 蘇聯이 極東軍事態勢를 再檢討하고 軍事力의 增強과 더불어 軍事力示威를 強化할 可能性이다 .

駐韓美地上軍의 撤収로 美国의 影響力이 東아시아에서 漸次 排除 되어가고 東아시아에서 中共이나 日本의 影響力이 增大되어 가며 , 美·中共 , 中·日本間의 協調關係가 增進되어갈 것에 對備하여 海軍 力을 中心으로한 極東 蘇聯軍의 能力을 強化시킬 可能性이 크다 .

事實上 極東蘇聯軍의 任務는 中共의 威脅에 對処하기 위한 것이 주된 任務이나 韓半島와 東南亞에서 美国의 勢力에 對항하고 中共 勢力을 고착·封鎖하는 것에 큰 比重을 두어 왔다 . 또한 蘇聯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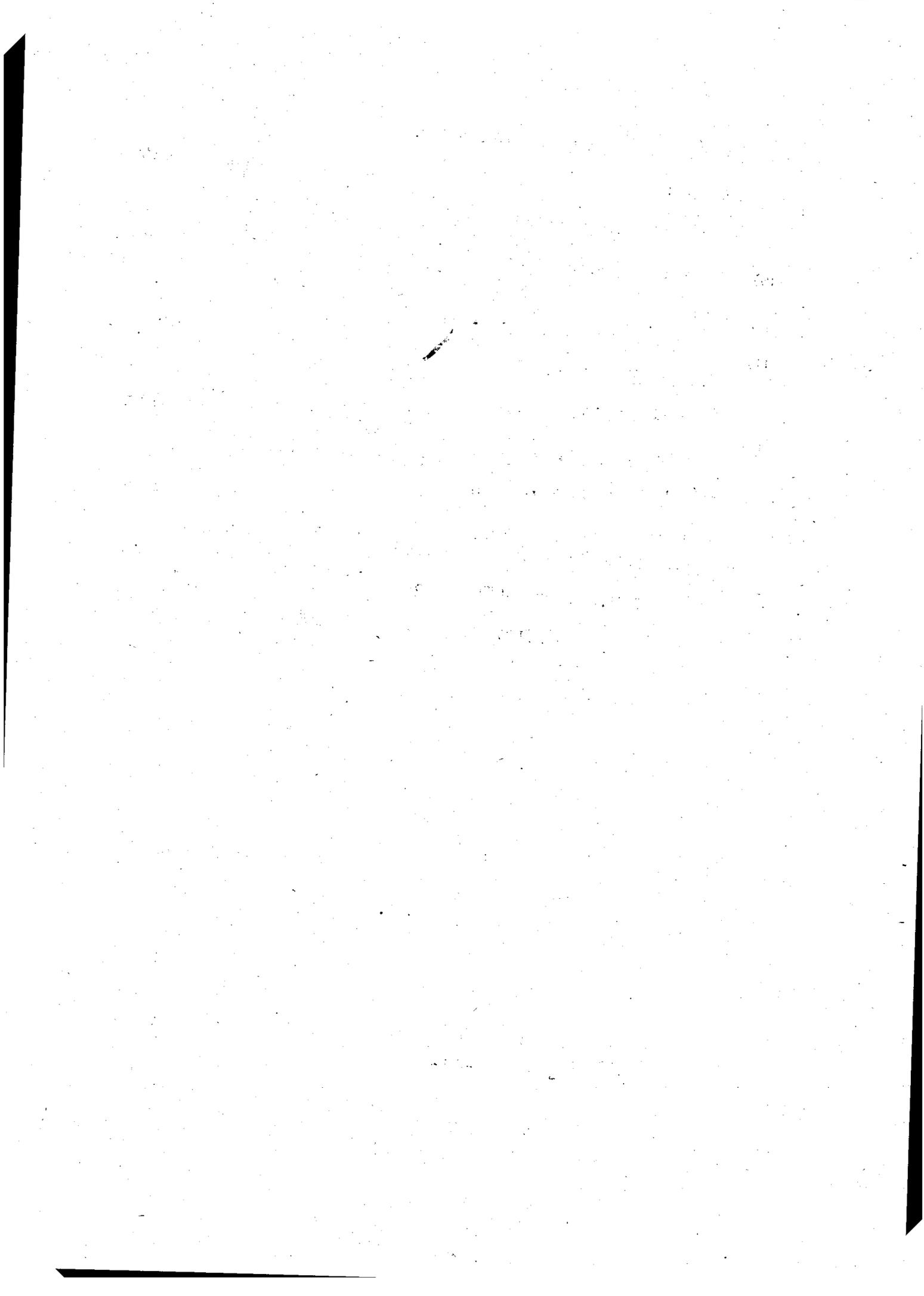
太平洋艦隊는 極東 蘇聯軍이 갖고 있는 여러가지 戰略的인 不利點을 側面에서 제거하고 보완해주는 任務뿐만 아니라 中共으로 하여금 그 海岸問題에 神經을 쓰도록 壓力을 가함으로써 中共의 勢力分散을 꾀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貢獻을 하여 왔다. 따라서 太平洋艦隊가 強化되어 아시아에서 制海權을 掌握하고 南支那海와 印度洋에 걸치는 海上戰略路를 確保하며 그것이 外交的 攻勢와 직접 結合된다면 對中共包圍網形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증강되는 蘇聯의 太平洋艦隊는 또한 日本의 對外輸出入路 특히 中東이나 인도네시아에서 日本에 이르는 油類輸送路를 直接 統制하고 강제할 수 있음으로써 日本의 安保에 負擔을 안겨주며 結果的으로 日本으로 하여금 蘇聯의 利益을 무시한 獨自的 行動을 못하도록 間接的 壓力을 가하는데도 效果的일 수 있다.

4. 參 考 文 獻

- (1) Donald Zagoria (洪秀原抄訳), "蘇聯의 極東戰略," 政經研究 (1978.4)
- (2) 崔昌潤, "駐韓美軍撤収와 蘇聯의 戰略," 北韓 (1977.6)
- (3) 金學俊, "蘇聯이 보는 韓半島," 中央 (1977.5)
- (4) 崔昌潤, "蘇聯의 戰略과 對韓半島政策," 高大亞細亞問題研究所, 「中共과 蘇聯의 戰略」(1977.12)
- (5) Chang-Yoon Choi, "Soviet Foreign Policy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 Evaluation of Policy Alternatives," Journal of Asiatic Studies (1977.7)
- (6) Thomas W. Robinson, "Soviet Policy in Northeast Asia: Determinants, Options, and Possible Changes," Journal of Asiatic Studies (1977.7)
- (7) Young C. Kim, Japanese-Soviet Relations: Interaction of Politics, Economics and National Security (The Washington Paper No.27, 1973)
- (8) C.C. Jacobson, "Strategic Consideration affecting Soviet Policy Toward China and Japan," Orbis, Vol. XVII, No.4 (Winter, 1974)

- (9) Charles A. Soprek, Planning U.S. General Purpose Forces: Forces Related to Asia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une, 1977)
- (10) William Schneider Jr., "Soviet General Purpose Forces," Military Review, VIII, No. 1 (Jan., 1978)
- (11) Michael Pillsbury, "U.S.-Chinese Military Ties," Foreign Policy, No. 20 (Fall, 1975)
- (12) Kiichi Saeki, "Toward Japanese Cooperation in Siberian Development," Problems of Communism (May-June, 1972)
- (13) Ralph N. Clough, Deterrence and Defence in Korea : The Role of U.S. Forces (The Brookings Institution : Washington D.C., 1976)



3. 中共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邊情勢觀

(安秉俊 : 延世大 政法大學 教授)

가. 머릿말

나. 中共의 對外國觀 및 政策基本方向

다.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라. 中共의 對蘇聯, 美國, 日本의 政策

마. 結論 : 韓國이 取해야 할 政策

바. 參考文獻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가.머 릿 말

中共은 公式的으로는 韓半島에 있어서 北韓의 立場을 全的으로 支持하지만 非公式的으로는 東亞에 있어서 四強均衡을 補完하고 特別히 蘇聯을 牽制하기 위하여 韓半島에 있어서 現狀維持를 願한다. 이러한 立場은 中共이 全世界의 勢力均衡에 대하여 갖고 있는 認識과도 一致한다. 즉 中共은 公式的으로는 소위 「三世界論」이란 名分아래 世界各國을 三分하지만 非公式的으로는 닉슨과 키신저가 企圖했던 五強勢力間의 均衡을 土臺로 하여 對蘇統一戰線을 構築하려 努力하고 있다. 이러한 世界觀은 東亞에 適用하면 中共은 역시 구두로는 美國과 蘇聯을 第一世界로 한데 묶지만 實際로는 對蘇統一戰線을 위하여 美國 및 日本과 積極적으로 提携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二重的接近法을 採用한 中共은 그 對外政策에 있어서도 長期目標과 短期目標을 區別하고 戰略的으로는 敵을 輕蔑하지만 戰術的으로는 그를 尊重하는 伸縮性있는 態度를 取하고 있다. 따라서 韓半島問題에 關해서도 表面上으로는 自體의 安保와 蘇聯牽制를 위하여 北韓의 統一政策을 擁護하지만 內面的으로는 美國의 對北韓接近을 促進함으로서 그 政治的影響力을 極大化하려 努力한다.

그러나 이러한 政策이 結實을 불러면 東亞에 있어서의 四強均衡과 中共의 對美國, 蘇聯, 日本政策도 補完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中·美 및 中·日關係가 急速度로 改善되고 中·蘇關係는 現狀

대로 繼續되면 中共은 韓半島에 對한 이른바 「三者會談」을 은근히 促進시킬 可能性이 있다. 그와 反對로 中·蘇關係가 制限된 긴장緩和(Limited détente)를 成就한다면 中共은 三者會談보다는 南北韓直接對話를 奨勵할 可能性도 있다. 現存하는 周邊情勢에 立脚해서 볼때 前者의 可能性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以上과 같은 情勢에 立脚하여 韓國은 對內的으로 政治安定을 鞏固히 하며 對外的으로 美國과 緊密한 政策協議 및 調整을 達成해야 할 것이다. 中共에 對해서는 美國政府를 通하여 北韓을 牽制할것과 韓·中關係改善의 뜻을 伝할 것을 중용하며 그밖에 U. N. 혹은 其他 國際交流通路를 通하여 中共과의 接觸을 끈기있게 試圖할 必要가 있다.

나. 中共의 對外國觀 및 政策基本方向

中蘇紛爭과 文化革命을 前後하여 中共의 對外國觀과 政策에 多少 變化가 있었다. 中共의 對韓半島 및 東亞政策을 理解하기 爲하여 中共이 對外政策에 있어서 取하는 基本方向을 理解해야만 한다. 理念的으로는 中共은 世界를 三分하여 革命과 民族解放을 政策目的으로 追求한다. 그러나 實際적으로는 中共外交政策은 매우 實用的이어서 「二重的 接近法」에 依하여 國家安保와 利益을 追求하는데 置重해 왔다. 이것은 中共이 現在 當面하고 있는 많은 經濟的 및 政治的 制約으로 因하여 國內 및 國際現實과 妥協한 結果 派生한 것이다. 戰略적으로 中共은 對蘇統一戰線을 表明하면서 基本的으로 守勢的 (defensive) 政策을 採択하면서 內實 卽 現代化課業에 온 힘을 傾注하고 있기 때문이다.

(1) 「三世界論」

中·蘇紛爭의 惡化로 因하여 中共은 從來의 世界觀을 多少 修正하여 「三世界論」을 내세웠다. 1974年4月 鄧小平이 U.N에서 宣言한 이 理論에 依하면 統一된 共產圈은 이제 더以上 存在하지 않고 美國과 蘇聯을 한데 묶어 第一世界로 日本과 西歐諸國을 第二世界로, 其他 後進國들을 第三世界로 보았다. 第一世界の 兩大 超強國은 國際的 搾取者요, 霸權主義者이다. 그러나 兩者中 蘇聯은

「社会帝国主義者」로서 世界大戰의 가장 危險한 源泉이며 軍事力에 依하여 擴大一路에 있다. 第二世界の 國家들은 비록 植民地一部를 維持하고 있지만 超強에 依하여 強壓되고 있다. 第三世界の 貧困한 國家들이야말로 帝國主義의 굴레속에서 아직도 政治的 獨立과 經濟的 繁榮을 追求하면서 民族解放과 革命의 主体勢力으로 登場하고 있다. 中共은 超強國이 아니며 霸權主義도 追求하지 않고 第三世界에 속하는 하나의 貧國임을 자처하고 있다.

中共은 第三世界の 代弁者로서 超強의 霸權主義와 侵略主義에 反對하는 廣範圍한 國際統一戰線을 要求한다. 特히 西方一部에서 蘇聯에 對하여 尤화政策을 보이고 있는 것은 오로지 蘇聯侵略主義를 助張하는 結果를 招來할 뿐이라고 主張한다. 따라서 蘇聯에 對하여 第一世界の 美國, 第二世界の 西歐 및 日本, 第三世界の 모든 國家들이 統一戰線을 構築하여 世界戰爭의 危險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中共의 主張이다.

以上과 같이 「三世界論」은 第三世界를 革命의 主体勢力으로 보고 蘇聯을 反革命의 像徵으로 보아서 表面上 理念的 色彩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 理論의 焦點은 蘇聯에 抗拒하는 廣範圍한 勢力을 迎合하는데 있으므로 其實 中共의 國家利益을 守護하는데 그 主目的이 있음을 看過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第三世界에 對한 中共의 公約은 大部分 象徴的인 것이고 오히려 美國과 第二世界の 國家들과 關係改善을 企圖하는데 그 力點이 있다.

(2) 二重目標

「三世界論」이 提示하듯이 中共外交政策은 長期的인 目標와 短期的인 目標을 同時에 內包하고 있다. 長期的으로 中共은 共產主義理念에 따라서 毛의 革命路線을 標榜하고 第三世界의 民族解放과 窮極的으로는 世界革命을 至上目標로 삼고 있다.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口號가 있다. 卽 「國家들은 獨立을, 民族은 解放을, 人民은 革命을 원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中國共産黨이 蘇聯共産黨과 競爭하면서 其他共産黨들에게 내세우는 상투적인 主張에 지나지 않는다.

中共이 보다 신중히 여기는 것은 短期的政策目的이다. 中共이 現在 認識하는바에 의하면 分明히 蘇聯이 最大의 敵國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蘇聯이 中共안보에 直接的인 威脅으로 認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中共의 短期的 政策目標에 있어서도 하나의 階次(hierarchy)가 있음을 알수 있다. 첫째 中共領土의 安全과 統合을 위해서는 蘇聯에 의한 軍事的 侵略을 막고 中共變更に 있는 國家들과 友好關係를 維持해야만 한다. 둘째 蘇聯과 競爭할 수 있는 軍備를 마련하고 二十世紀末까지 先進國의 隊列속에 들기 위해서는 급속도로 農業, 工業, 國防, 科學 및 技術의 「四個 現代化」를 추진해야 한다. 셋째 國際問題에 있어서 政治的影響力을 行使하기 위하여 中共은 第三世界의 領導者로 자처하면서 한편 美國, 日本, 西歐와 關係를 改善해야 한다. 以上과 같이

中共은 長期的으로는 革命路線을 繼續 標榜하여 短期的으로는 國家利益을 극대화하는 二重的接近法을 취하고 있다.

(3) 政策의 制約要素와 手段

外交政策의 目標은 環境의 要素와 政策手段의 現實에 의해 制約된다. 따라서 政策公約은 國家能力에 依해서 制約된다.

傳統的으로 中共外交政策을 制約해온 要素中에는 今世紀中에 中國이 겪은 歷史的經驗. 特히 中國共產黨이 겪은 革命經驗, 毛沢東이 發展시켜온 共產主義理念, 中共이 當面한 社會經濟條件, 中共이 처한 國際環境, 마지막으로 國內政治過程등이 있다. 中共이 執權 한후 時間이 經過하고 特히 革命의 第一世代가 死亡하고 第二世代에 依한 世代交替가 이룩되고 있는 이때 上記 要素中 社會經濟條件, 國際環境과 國內政治가 더 많은 制約을 行事하고 있다. 이것은 毛가 死亡하고 「四人幫」이 숙청된후 中共指導者들이 中共現代化, 開放外交, 閣僚主義的 政治課程을 부활하는데서 더욱더 그러하다.

即 毛思想이란 理念的公約을 反復하지만 政策의 內容에는 非毛的인 것을 더욱 重視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當面하고 있는 現實問題의 해결에 부심하고 있음을 證明하며 한편 자기들의 正統性을 確立하기 위해서는 毛의 이름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中共이 政策을 遂行하는데 또 하나의 直接的인 制約要素가 있으며

手段의 制限性이 그것이다. 좀 단순화하면 中共은 그 長期的 目標을 達成할수 있는 政策遂行能力을 갖고 있지 않다. 即 中共이 超強國임을 부정하고 第三世界國으로 자처하는 것은 現實에 가까운 態度이다. 中共은 아직도 産業化以前의 社會經濟條件에 처해있다. 過去 29年동안 農業에 있어서도 年平均 2%, 工業에 있어서선 7% 程度의 成長을 維持해왔는데 GNP도 現在 2兆5百億弗程度에 一人當 GNP는 150弗程度이며 鐵鋼生産도 年間 約3千萬噸程度에 不過하다. 最近에 發表한 10年計劃은 이와같은 生産水準을 10年이내에 배증할 것을 目標로 삼고 있다.

이와같이 未備한 經濟力을 가진 中共은 그 軍事力에 있어서도 相當한 制約性이 있다. 中共에 가장 豊富한 資源이 있다면 人力인데 이에 따라 3百5拾萬程度의 人民解放軍과 7百萬程度의 民兵이 主力軍을 構成한다. GNP의 約 7%, 全部豫算의 40%를 軍備에 補充하며 이것은 年間 280億弗程度에 達한다. 이처럼 陸軍은 世界最大의 規模이나 空軍, 海軍, 戰略武器에 있어서는 美國과 蘇聯에 크게 뒤지고 있다.

空軍은 約 3,500隊의 戰鬪機와 22萬軍隊를 가졌지만 구식 MIG 와 TU형이 대부분이고 最近에 英國으로부터 Roll Royce Spey 엔진을 導入하여 現代化를 시도하고 있다.

海軍은 1,450隻의 전함과 17萬軍隊로 編成되어 있으나 「靑水海軍」으로서의 兩洋함 혹은 上陸能力은 缺如되어 있다.

戰略武器로는 23회의 核彈實驗과 10餘個의 人工위성을 發射했고 現在 約 50여기의 MRBM과 20기의 IRBM을 보유하며 ICBM은 發展段階에 있다. 이와같은 軍備는 蘇聯에 對하여 어느程度로 信빙성 있는 억지력 (Credible deterrent)을 보이고 있으나 全적으로 信빙성있는 第二次 요격 능력 (Second Strike Capability)은 保有하고 있지 않다. 中共이 核武器를 먼저 使用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理由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4) 勢力均衡 및 守勢戰略

以上에서 약술한바와 같은 世界觀, 目標, 手段에 따라서 中共은 對外政策에 있어서 基本的으로 統一戰線이란 名目下에 勢力均衡과 守勢的인 戰略을 취하고 있다. 理論的으로는 「三世界論」을 내걸고 있지만 實際로 中共은 第三世界보다 第二世界の 日本과 西歐 그리고 美國과 自体를 있는 四強統一戰線을 구축하여 蘇聯을 견제하려 努力한다. 이점에 있어서 中共政策決定者들의 견해는 키신저의 것과 일치되어 世界的 五強, 東亞에 있어서는 四強간의 均衡을 지향하고 있다.

勿論 선전공세에 있어서는 革命을 제천명하지만 그 實際行動에 있어서는 守勢的인것이 中共外交政策의 一特徵이다. 「우리가 먼저 공격은 않겠다 그러나 공격받으면 我們 반격할 것이다」란 口號도 이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中共外交에는 三個의 각기 다른 水準이 있다. 먼저 黨과 黨間의 關係에는 原理原則에 立脚한 국제무산계급주의를 表明한다.

그다음에 國家와 國家間에 있어서는 비록 社會制度가 다르다하더라도 平和五原則(주권 및 영토통합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호혜, 평화공존)에 立脚하여 국교를 정상화된다. 人民과 人民間에 있어서는 平和와 우호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人民外交를 圖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方針을 따라 中共은 먼저 그 辺境의 國家들과 선인관계를 強化하고 蘇聯을 反對하는 모든 勢力을 야합하려 努力한다. 특히 蘇聯의 影響力이 끼치는 北韓에 있어서는 蘇聯과 競争하면서 政治적으로 경제적으로 援助를 아끼지 않는다. 또 蘇聯과 對處하여 國內의 産業化를 위하여 美國, 日本, 西歐諸國들과 貿易 및 文化交流를 積極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요컨대 中共은 自國의 安保와 私益이 問題될때 現實政治的인 勢力均衡政策을 과감하게 追求하고 있다.

다. 中共의 對韓半島政策

中共은 韓半島問題에 對하여 北韓의 立場을 지지한다. 卽 金日成이 1973年에 發表한 「南北韓聯邦制」를 贊成하며, 韓半島에 있어서 두개의 國家가 존재하는 現實을 外面하고 있다. 따라서 美國政府가 제안한 南北交替승인 或은 四者會談을 反對한다. 이것은 原則적으로 金日成의 의견을 존중하며 UN과 기타 국제 회합에서 北韓의 立場을 지지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만약 北韓이 對美國 또는 對韓國態度를 다소 變更할때도 中共은 北韓의 立場을 지지할 것이다. 이것은 北韓에 있어서 蘇聯과 競爭하여 北韓을 반소통일전선에 유도하고 최소한 中蘇紛爭에 中立的立場을 취할것을 中共이 원하기 때문이다. 한편 韓半島問題로 인하여 中共은 다시 美國과 교전한다든지 日本과의 現存關係를 惡化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보면 東亞에 있어서 四強均衡을 헤치거나 보다 具體적으로 中共이 直接介入될 可能性이 있는 事態의 發生은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中共은 蘇聯과 競爭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는 北韓을 지지하지만 韓半島에서 또 하나의 무력충돌을 회피하는 의미에 있어서 現狀維持를 은근히 巴라고 있다.

이렇게 미묘한 처지에 놓여있는 中共은 南北韓問題와 北韓의 對美接近에 對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態度를 취해오고 있다.

(1) 对北韓政策

中共은 北韓을 완충지로 또 対소영향권의 一國으로 그리고 美国과 關係에도 직결되는 중요지역으로 간주한다. 原則적으로 北韓의 外交路線을 中共은 지지하되 自國의 外交政策目標과 一致되는 限度內에서 積極적인 支援을 아끼지 않으려 努力한다. 만약 北韓의 目標가 中共의 것과 상치될때 中共은 勿論 自國의 利益을 擁護하는데 注力하면서 北韓과의 意見차이를 극소화하려 진력할 것이다.

첫보다 먼저 - 中共은 北韓을 中.蘇, 中.日, 中.美間의 완충지로 간주하며 北韓의 침범은 中共自體를 威脅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中共은 1950年에 美国과도 接戰했으며 결코 北韓政權의 破壞는 許容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1961年에 中共이 北韓과 防衛條約을 締結하여 北韓에 對하여 第三者가 침범할때 中共은 北韓을 도울것을 다짐한바 있다.

1969年에 닉슨·佐藤聲明이 韓國이 日本安保에 직결된다는 것을 申明한후 周恩來自身이 1970年4月에 北韓을 訪問하고 政治 및 軍事支援을 約束한바 있다. 그후 美国과 제한된 긴장완화를 시도할 무렵 中共은 1971年7月 板門店休戰會談에 中共代表를 다시 派遣하여 韓半島問題에 관심을 재천명하였다.

中共은 北韓에서 또 蘇聯과 競爭하며 北韓이 친소위성국화합을 막으려 努力한다. 만약 北韓이 親소권에 전락하면 中共에 對한 政治的 및 軍事的인 요충지로 使用될 것이며 심지어 만주의 安保를 威脅할

것이다. 따라서 中共은 可能한한 北韓의 對外政策을 支持하고 대변하려 努力한다. 金日成의 「연방제」를 두둔하고 한편 蘇聯은 韓半島에서 두개의 韓國을 助長한다고 非難하고 있다. 이에 따라 美国이 제시한 南北韓交替承認이나 蘇聯이 參加하는 六者會談등을 反對하고 金日成이 시도하는 對美直接對話를 支持한다.

1974年부터는 韓半島로부터 美軍의 撤収할것을 積極 主張하면서 中共은 北韓과 共同보조를 취해왔다.

그러나 中共은 韓半島에서 美国或은 기타국가와 무력충돌에 介입될 수 있는 事態는 원치않는다. 1975年4月 越南이 와해된후 金日成이 北京을 訪問하고 韓半島에 있어서 모종의 軍事行動을 지원해줄것을 要請했을때 鄧小平은 「平和的統一」을 強調하였다.

反面에 金은 韓國에서 革命이 일어나면 좌시하지 않겠노라 호언하여 中共指導者들과 견해차이를 世上에 暴露하였다. 金을 무마하기 위하여 中共은 이때 北韓이 「朝鮮民族의 유일한 합법주권국」이라고 두둔한바 있다. 이후 中共은 UN에서 繼續 北韓立場을 擁護했고 美国官吏들과의 會談에 있어서도 北韓을 支持해 왔다는 것이다.

今年 五月 華国鋒이 평양을 訪問한 것도 北韓經濟가 과탄狀態에 놓여있음을 意識하고 北韓이 蘇聯에 급선회할 可能性을 미연에 防止 하자는데 그 主目的이 있을 것이다.

(2) 北韓의 對美接近에 對한 態度

中共은 北韓이 美國과 接近하는것을 지지하며, 또 北韓이 원한다면 모종의 중재적 役割도 担当할 것이다. 이것은 中共自體가 美國과 關係를 改善하고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資本과 技術등에 있어서 利得을 보고 있으므로 美·北韓關係改善은 美中關係의 進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北韓의 경제 위기를 打開하고 蘇聯으로부터 北韓을 격리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政治的 影響力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中共은 可能한 그자체가 參與할 수 있는 對美協商을 원할 것이다. 即 美國, 中共, 北韓의 三者會談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그것이 不可能할 경우 적어도 中共은 하나의 옵저버로 參席할수 있는 회담을 원할 것이다.

蘇聯은 한국전의 당사자가 아니고 中共은 당사자라는 명분아래 蘇聯을 韓半島問題에 關한 協商에서 除外시키려 努力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華國鋒은 평양을 訪問했을때 蘇聯이 現國際情勢에서 더욱 危險한 存在임을 強調했을 것이다. 即 「앞문으로 호랑이(美國)를 쫓는 동안 뒷문으로 늑대(蘇聯)를 들어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中共의 對蘇路線을 主張했을 可能性이 크다.

中共自體의 經驗에 비추어서 美國이 蘇聯보다는 덜 危險하다는 點을 指摘하면서 東亞에서 地上軍을 減縮하고있는 美國과 政治的 協商을 하는것은 賢明한 것이라 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美国은 韓國의 参与없이는 北韓과의 對話를 거부함으로써 北韓이 願한다면 韓國을 包含한 三者會談도 해볼만한 것이라고 華는 指摘할 可能性이 있다. 이와같이 中共은 北韓이 美国과 接近함을 支持하며 北韓이 願한다면 그 의사를 美国에 傳達할뿐 아니라 어느정도의 중재적 역할을 担当할 것이다.

華는 지난 五全人大에서 宣言한 것처럼 公式的으로는 中共이 「朝鮮人民의 自主적이고 平和的統一을 위한 鬪爭」을 積極 支持한다는 것을 北韓과 美国側에 強調할 것이다. 非公式的으로는 그가 訪問했을때 金日成의 見解를 美国側에 또 브레진스키의 北京訪問때의 견해를 北韓側에 伝할 것이 分明하다. 이以上の 積極的인 調整 및 중재적 役割은 回避하고 하나의 促進的인 作用만 担当할 것이다.

(3) 對韓國態度

中共이 취하고 있는 對北韓政策의 反對面이 對韓國政策이다. 原則的으로 韓國을 認定하지 않으며 피치못할 경우 即 黃海上 漁船의 조난같은 事態에 대하여서는 人道主義的인 態度를 취한다. 北韓을 政治的으로 擁護함으로써 北韓의 参与 없는 韓國과의 會談에 는 參席치 않을뿐 아니라 韓國內의 계반정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態度를 取할 것이다.

라. 中共의 對蘇聯, 美國, 日本政策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은 東亞에 있어서의 四強均衡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中共이 보는바에 의하면 東亞에 있어서 一種의 均衡이 形成되고 있으나 그것은 매우 流動的인 것이다. 美國이 그 勢力을 減少하는가 하면 蘇聯은 現狀維持에 挑戰하여 勢力을 急增하고 있으므로 美國 및 日本과 提携하여 蘇聯을 牽制하자는 것이 中共의 對東亞政策이다.

(1) 對蘇聯政策

원래 中共은 蘇聯國民과 깊은 友好關係를 맺은바 있으나 蘇聯의 支配層은 맑스 레닌主義를 背反하고 中共人民을 적대시하였다. 그러므로 原則上的 問題에 대해서는 蘇聯과 많은 見解差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原則上的 差異가 正常的인 國家間的 關係를 해결 必要는 없다. 따라서 中共은 平和五原則과, 1969年의 周恩来·코시킨間的 理解에 立脚하여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願한다. 蘇聯은 이것을 否認하고 國境會談은 失敗로 돌아갔다. 지금이라도 蘇聯이 진정코 關係改善을 願한다면 말로만 할것이 아니라 行動으로 즉 國境의 現狀維持에 關한 協定에 調印하고 紛爭地로부터 軍隊를 隔離시킨後 協商에 依하여 懸案問題를 解決해야 한다.

그와反對로 蘇聯이 繼續해서 中共을 비난하고 封鎖하려 한다면

毛가 指示한대로 中共人民은 戰爭에 對備하여 만한의 態勢를 갖추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때 蘇聯이 對中共態度를 바꾸지 않는 限 中共은 戰爭도 平和도 아닌 「冷戰」狀態를 繼續하면서 經濟力과 軍事力을 擴充하려 努力할 것이다.

(2) 對美國政策

비록 社會制度가 다르다 할지라도 現國際情勢에서 中共은 美國과 어느程度의 共同利益을 갖고 있다. 蘇聯의 擴大主義를 막기 위하여 中共은 1972年에 上海共同聲明을 採択한뒤 美國과 關係를 改善하려 努力해 왔다. 그러나 臺灣에 對한 美國政府의 態度가 兩國間의 國交正常化를 阻害해 왔던 것이다. 中共은 臺灣을 解放할 것이고 언제 어떻게 한다는 것은 中共內政의 問題이다. 만약 美國이 國交正常化를 願한다면 三原則 즉 蔣 政府와 外交關係를 斷切하고 모든 美軍을 撤収하며 相互 防衛條約을 廢棄해야만 한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非公式的으로 中共은 臺灣問題에 對하여 「日本式」解決을 願한다. 다만 美國內의 政治過程에서 카터政府가 「日本式」에 依한 國交正常化를 推進할 수 있을때 中共은 積極的으로 外交攻勢를 펼 것이다. 그동안은 美國民과의 關係를 擴大하여 經濟的, 文化的인 交流를 增進시킬 것이다. 特히 在美華교들中에 優秀한 科學 및 技術者들을 招聘하여 中共科學技術의 現代化에 拍車를 加할 것이다.

韓半島에 대해서는北韓의立場을 美國에 伝하면서 對北韓直接協商을 勸奨할 것이다. 美地上軍撤収를 繼統적으로 要求하면서 軍事補完措置도 非難할 것이다. 北韓이 願하지 않는限 中共은 韓半島問題에 대하여 대체로 消極的인 態度로 美國을 임할 것이다. 北韓이 願한다면 韓半島에서 南北韓間의 軍縮같은 提案을 美國에 說得시키려 努力할 可能性도 있다.

(3) 對日本政策

中共은 日本을 가장 가까운 善隣 國家로 본다. 1972年의 國交正常化以後 日本과의 交流는 各分野에 있어서 增加해 왔다. 지난 2月 中共은 日本과 8年間 持統될 貿易協定을 맺고 200億弗程度의 輸出入을 約束한바 있다. 懸案問題中 中·日平和友好條約의 締結이 가장 큰 問題인데 中共은 蘇聯을 意識하여 反霸權主義條項을 挿入할 것을 主張하고 있다. 日本은 그 條項이 一定한 第三國을 指稱하는 것이 아니라는 文句를 挿入하면 同意할 것이라고 答하고 있다. 中共은 福田首相이 이條約에 對하여 微溫的인 態度를 보이고 있음에 不滿을 품고 日本內政에 있어서 特히 自民黨內의 反中共派들을 政治的으로 弱化시키기 위하여 1978年4月에 「센가꾸」列島에 中共漁船을 投入하였다. 蘇聯과 蒙古等이 日本便을 들고 日本國內輿論이 反中共的으로 展開되자 中共은 漁船을 撤収하고 「釣魚臺」問題와 友好條約問題는 別個의 것이라고 宣言하였다.

이와같이 威脅과 外交攻勢를 섞어가면서 中共은 福田로 하여금 1978年 以內에 中日友好條約을 締結하겠음 壓力을 加하며, 만약 이 計劃이 成功하지 못할때 12月에 있는 自民黨總裁選舉를 즈음하여 보다 親中共派의 人物이 當選되겠음 努力할 것이다.

友好條約은 이제 時間問題로 남아있고 經濟交流는 豫定대로 擴大될 것이다. 蘇聯을 牽制하기 爲하여 中共은 日本自衛隊의 軍備補充을 支持하며, 심지어 自衛隊의 司令官까지 北京에 招請하여 軍事情報를 交換하기에 이르렀다. 나아가서 現在 日本에서 일어나고 있는 安保意識을 中共은 歡迎하면서 軍備補完을 主唱하는 政治人을 北京에 招請하고 있다. 韓半島問題에 關해서도 日本政界一部에서는 北韓의 經濟危機를 타개하기 爲하여 日本輸出入銀行에 依한 借款을 贊成하고 있으므로 中共은 이러한 見解를 支持하면서 日本으로 하여금 北韓과의 關係를 改善 혹은 正常化할 것을 중용할 것이다. 그러나 兩國은 安保上의 共同利益을 더욱 重視하며 따라서 蘇聯에 대처하는데 어느程度의 共同步調를 취할 것이다. 中共은 繼統적으로 蘇聯이 占領하고 있는 「사하린」列島에 대한 日本의 立場을 支持할 것이다. 나아가서 中共은 友好條約締結을 爲하여 보다 平和的인 外交攻勢를 展開할 可能性도 있다.

이렇게 東亞의 四強은 相互間에 各己 다른 政策을 追求하고 있다. 越南戰爭以後 美國의 勢力이 減少되고, 어느一強도 霸權을 누리지는 못하며 또 四強 相互間에는 戰爭의 可能性은 稀少하다는

意味에서 볼때 東亞에서는 하나의 勢力均衡이 形成되고 있다. 그러나 이 均衡은 매우 動的인 것이고 相異한 政策의 結果 招來된 것이지, 四強이 共同的인 政策을 採択하여 이룩된 것이 아닌 點을 理解해야만 한다. 따라서 韓半島에서 어떤 事態가 派生하면 이 均衡은 破壞될 것이니 南北韓間의 勢力均衡과 四強均衡은 相互不可分の 關係에 놓여 있다. 韓國의 安保도 이 關係에 달려 있음은 말할것도 없다.

다. 結論 : 韓國이 取해야 할 政策

以上에서 개관한 中共의 韓半島 및 周邊情勢觀에서 우리는 中共이 北韓의 立場을 支持하고 其他 列強과는 一種의 勢力均衡을 維持하면서 美國 및 日本과 提携하여 蘇聯을 牽制하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가장 重要한 事實은 韓半島에 對하여 四強間에는 一定한 理解가 成就된 것이 아니라 相互理解關係의 相衝으로 因하여 莫然히 韓半島에 있어서 現狀維持를 四強은 願하고 있다는 假說이 提示된 點이다. 이것을 다르게 表現하면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四強들은 自己들 相互間에는 戰爭을 願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韓半島에 現存하는 二國家들의 內政 및 相互關係의 如何에 따라서 戰爭이 誘發될 수도 있다는 結論을 想像할 수 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武力衝突은 金日成이 四強關係를 如何히 認識하느냐와 또 韓國內實情을 如何히 認識하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金이 誤認할 수 있는 要素를 除去하는 것이 韓國이 取해야 할 政策課業인 것이다. 이점을 深思熟考해 보면 먼저 四強 스스로가 金으로 하여금 情勢를 오인하지 못하게 어떤 牽制의 役割을 担当해 주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現情勢下에서 매우 不可能한 것이므로 韓國은 現國際情勢에 適應하여 알맞는 代案을 能動的으로 樹立해 가야 할 것이다. 이제 이 代案의 輪廓을 提示해 보자.

첫째 韓國은 國內에서의 政治不安의 餘지를 除去하고 名實共히 國民總和를 達成하여 政府가 推進하는 政策目的에 온國民이 自發적으로 또 積極적으로 同意하며 그것을 遂行하는데 熱誠적으로 參與하는 분위기를 造成해야 할 것이다. 둘째, 美國과 모든 懸案問題를 迅速히 解決하고 撤軍에 따른 軍事補完措置를 共同으로 完成시켜서 韓半島에 있어서 軍事均衡을 기어코 維持할 것이다. 셋째, 友邦 특히 美國 및 日本과 第三世界에 있어서 韓國의 이미지를 改善하고 中共과 蘇聯과의 關係改善을 多方面으로 摸索할 것이다.

外交政策에는 그 遂行方法(style)이 그 內容(substance) 못지 않게 重要하다. 따라서 上記 政策의 基本方向은 韓半島에 있어서 「하나의 民族中 두개의 國家」란 現實을 概念的으로 또 實際行動에서 研究하고 弘報할 必要가 있다. 그러기 爲한 方法으로서 첫째 國民總和와 政策決定 및 遂行은 될수록 對話와 參與를 通하여 達成할 것이다. 둘째 對美外交에 있어서 먼저 韓國內에서 緻密한 企劃 및 調整이 先行된뒤 美國政府와 体系的인 協議 및 調整(Consultation and Coordination)을 거쳐 可能的인 共同的인 步調를 취할 것이다. 셋째, 韓國을 外國에 弘報하는데 보다 知的이고 세련된 方法을 取해야 하며 對共產圈에 對해서는 非公式經路를 通하여 끈기있게 接觸을 試圖하면서 한편으로는 共產各國의 情勢에 對한 研究를 体系的으로 推進해 갈 것이다.

中共에 對하여는 美國과 日本의 外交經路를 利用하여 北韓을 戰

争挑発로부터 抑制할 것과 韓・中共關係改善의 뜻을 繼統적으로 傳達해야 할 것이다. 한편 中共이 加入하는 모든 國際職能機構와 文化 및 運動行事を 通하여 中共代表와 接近을 試圖하고 또 黃海에서 派生할 수 있는 事例에 對하여 可及的으로 衝突을 避해야 할 것이다. 만약 中共漁船等이 韓國海峽에서 遭難 혹은 事故를 當했을때 그를 積極的으로 敝助하는 友好的 態度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卞.參 考 文 獻

- (1) Prinan Sources: 人民日報, 光明日報, 紅旗
Peking Review, New China News Agency
- (2) Seconday Sources
- A. Poak Barnett, Uncertain Passage (Washington, D.C.,
The Brookings, 1974)
- A. Poak Barnett, China and the Major Powers in East
Asi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1977)
- A. Poak Barnett, China Policy: Old Problems and New
Challenges (Washington, D.C.; The Brookings, 1977)
- Byung-joon Ahu, Chinese Politics and the Cultural
Revolution (Seattle & London: Universitz of
Washington Press, 1976)
- John Gittings, The World and China, 1922-1972
(London: Methuen, 1974)
- Allen S. Whiting, The Calculus of Chinese
Deterrence (Ann Arbor: Universitz of Michigan
Press, 1975)
- Zbigniew k. Brzezinski, The Soviet Bloc: Unitz and
Unfliet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z
Press, 1960)

Young C. Kim & Abraham M. Halper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New York: Praeger, 1977)

Allen Whiting & Robert Dernberger, China's Future:
Foreign Polic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ost-Mao Era (New York: McGraw-Hill, 1977)

Seligs, Harrison, China, Oil and Asia: Conflict Ahead?
(New York: Carnegie Endowment, 1977)

4. 日本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邊情勢觀

(崔相竜 : 中央大学校 政經大 教授)

가. 머릿말

나. 日本의 國際情勢觀

(1) 美·蘇의 軍事關係

(2) 東北亞細亞의 國際環境

다. 日本의 韓半島情勢觀

- 安保問題를 中心으로 -

라. 参考文献



가. 머 리 말

이 小論은 日本의 立場에서 본 國際情勢觀과 韓半島情勢觀을 以
슈中心으로 要約하는 것을 目的으로 한다.

첫째 國際情勢觀에서는 世界的 水準과 地域的 水準으로 나누고
前者는 美·蘇間의 軍事關係, 後者는 東北아시아에 있어서의 美·蘇
中 3角關係에 대한 日本側의 中·長期的 情勢觀과 當面의 外交課
題인 日·中平和條約의 展望에 대하여 記述하였고,

둘째 韓半島情勢觀에서는,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이 基本的으로 外的
要因인 美日關係와 內的要因인 日本의 國內政治에 의해 左右된다고
보고 그러한 前提下에서 도출된 日本外務省 및 防衛庁當局의 韓半
島情勢觀을 기술한 다음, 當面課題인 南北韓等距離外交問題, 美·
北韓接近問題, 그리고 駐韓美地上軍撤収問題等に 대한 日本側의 反
應을 觀測해보고자 한다.

나. 日本의 國際情勢觀

(1) 美·蘇의 軍事關係

① 美·蘇兩國은 第2 攻擊能力을 保有하고 있기 때문에 核戰爭을 相互가 抑止할 수 있는 關係에 있고 각기 核을 가지고 있지 않은 友好國에 대하여 이른바 核의 우산을 提供하고 있다. 또한 美·蘇兩國을 中心으로 하는 集團安保體制가 存在하기 때문에 主要國家間의 直接的인 軍事力의 行使는 크게 制約을 받고 있다.

② 그러나 美·蘇間의 核抑止機能이 미치지 못하는 世界各地에서 內戰 또는 國際的性格의 軍事紛爭이 그치지 않고 있고 그 軍事力의 使用形態도 複雜化하고 있다.

③ 지난 10年間의 蘇聯軍의 顯著한 增強은 同期間에 있어서의 美國軍事力의 量的低下傾向과 對照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蘇聯에 대한 美國의 軍事的均衡은 아직도 維持되고 있다.

(2) 東北아시아의 國際環境

① 구라파에 있어서의 國際關係는 基本的으로 NATO와 와르샤와 條約機構의 二元的 對立으로 나타나는데 대해 東北아시아에 있어서는 中·蘇對立의 繼續 및 美·中共關係改善을 背景으로 하여 이른바

3極構造를 形成하고 있으며 美·中·蘇 3 國은 각기 다른 2 國의 動向을 計算에 넣을 必要가 있기때문에 行動을 慎重히 하고 있다.

② 中·蘇對立은 이른바 統制된 葛藤을 繼續할 것이 豫想되어 大規模武力紛爭의 可能性은 적으나 兩國의 兵力이 國境周邇에서 대치하고있는 狀況은 周邇, 특히 東北아지역의 軍事的安定에 무시할수 없는 要因이 되어 있다.

③ 美·日安保條約은 日本을 包含한 東北아시아의 安全과 安定에 불가결한 前提로 되어있다.

④ 東北아勢力均衡에 있어서 가장 注目할만한 變動要因은 蘇聯 軍事力의 增強과 在韓美地上軍의 撤收問題이다. 前者는 蘇聯周邇地域에 있어서의 西方側制海權에 대한 挑戰이기때문에 今後 美國을 中心으로한 西方側諸國이 適切한 対応措置를 講究해야할 것이다.

後者에 對해서는 北韓에 주는 政治的·心理的 影響을 考慮하여, 今後 韓半島에서의 大規模紛爭을 防止하기 위하여 美國의 對韓防衛의 繼續, 在韓美空軍의 維持 強化, 韓國軍近代化計劃의 추진 등의 対応措置가 必要할 것이다.

日本은 위와같은 國際情勢觀을 토대로 하여 美·日安保體制를 堅持하고 自國의 「基盤的 防衛力」의 整備를 착실히 進行시켜 日本周邇의 安定的均衡을 維持해 나가는 것을 中·長期的 政策目標로 하고 있다.

이러한 中·長期的 國家目標下에서 當面外交課題로서 提起되어 있는 것이 日·中平和友好條約의 締結問題이다.

「田中」前首相이 1972年9月日·中国交正常化를 實現한 이래 日本의 自民党内에서는 비둘기派·親中国派였던 三木前首相當時에 日中平和條約締結이 焦點이 되었으나 結局 日本의 「東郷」外務次官과 中共의 「陳楚」駐日大使에 의한 6회의 會談이 決裂되었고, 그 後도 三木內閣의 「小坂」外相, 福田內閣의 「鳩山」外相이 유엔總會 등에서 中共側과 接觸을 가졌으나 아무런 前進을 보지 못했다.

본래 親台灣그룹의 派에 의해 支持를 받고있는 福田首相이 日中條約締結에 積極的이고 비둘기派·親中共派인 三木前首相이 中共側으로부터 蘇聯介入의 契機를 만든 張本人이라고 非難받은것은 하나의 아이로니가 아닐 수 없다.

아무튼 福田首相으로서의 닥아오는 自民黨總裁公選에서 재선을 確保하기 위해서 懸案중인 最大의 外交課題인 日·中平和條約을 處理하는것이 선거戰에 有利할뿐만 아니라 日·中條約을 放置해둠으로써 豫想되는 野黨으로부터의 非難을 줄일 수 있으며, 就任1年半가까운 福田政權이 歷史에 남을만한 이렇다할 実績도 없이 国内政治에서 「円高」「福田安」(「엔」의 가치는 높아졌으나 福田의 人氣는 낮아진다는 말)의 評價가 나오고 있기때문에 今後 日·中間에 衝擊的인 事件이 再發하지 않은限 在任中에 日·中平和條約을 締結할 可能性이 높다고 볼수있다.

그러나 現時点에서는 交渉의 再開가 그대로 條約의 締結로 順調롭게 進行될것 같지는 않다. 豫想되는 最大의 障礙는 역시 條約文作成段階에 있어서의 「霸權」의 表現이다. 바로 이 霸權의 処

理야말로 日, 中과 日·蘇外交 진전의 열쇠가 되는 基本問題이다.

霸權問題에 대한 日本側의 基本立場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反霸權이 內政干涉, 主權尊重과 같은 平和原則의 하나라는 前提下에서 ① 特定の 第3国을 對象으로 하지 않는다. ② 中共과의 共同行動을 意味하지 않는다. ③ 아시아·太平洋地域뿐만 아니라 世界의 어느곳에서도 霸權을 反對한다. ④ 유엔憲章의 精神에 일치한다 等, 이 가운데 ③과 ④는 그렇게 어려운 問題가 아니고 ②에 대해서도 1976年9月 宮沢·喬冠華會談에서 양해에 도달한 것이다. 따라서 最大의 問題點은 “特定國을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에 대한 確認이다. 中共은 三木前首相이 主張한바와같은 “霸權反對는 特定國을 對象으로 하지 않은 普遍原則”이라는 命題에 滿足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福田」首相은

① 蘇聯에 대해선 領土問題 등으로 積極的 對立을 피하고 온건한 外交姿勢를 취하고, ② 적당한 時期에 霸權에 대한 中共의 立場을 받아들여 霸權問題를 둘러싼 兩國間의 争點은 條約締結後의 解釈論争으로 미루어버리려는 計算을 함으로써 潛在的, 心理的으로는 蘇聯을 仮想敵國으로 보면서도 現實政策에 있어서는 中·蘇等距離 外交를 겨냥해 나갈것으로 보여진다.

다. 日本의 韓半島情勢觀

- 安保問題를 中心으로 -

戰後 日本의 外交政策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相反된 評價가 있다. 어떤 사람은 이를 大勢迎合主義라고 批判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를 無資源海洋國家 日本이 現實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合理的인 政策이라고 예찬한다.

아무튼 日本은 어떤 原則에 立脚한 積極적인 外交보다는 그때 그때의 世에 소극적으로 順應해 온 것이 事實이며, 安全保障의 觀點에서 볼 때 戰後 日本의 對韓政策도 積極적이고 独自の인 形態로 등장한 적이 없고,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要因, 즉 美·日 關係와 日本의 國內政治의 動向에 크게 影響을 받아 왔던 것이다.

今後 中長期的으로 볼때 日本의 對韓政策의 行動 반경도 同期間 中の 日本의 對美關係를 주축으로 하여 對中, 對蘇關係, 그리고 韓半島 問題를 둘러싼 日本의 國內政治의 다이너미즘에 依해 決定될 것으로 보여진다. 우선 美·日關係부터 보기로 하자.

戰後 30年間 日本은 對美關係를 주축으로 하여 外交政策을 決定해 왔다.

戰後 日本 政治의 軌道를 設定해 놓은 美日安保體制는 1960年, 1970年 두차례에 걸쳐 연장됨으로써 日本의 保守權力體制의 근간

이 되었으며 最近에 와서는 中共으로 부터도 암묵의 양해를 받게 됨으로써 1950年代, 1960年代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狀況에 直面하고 있다.

70年代부터 美·日關係는 安保問題에 関한 한 그야말로 “問題 없는 時代”(The No-Problem Era)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美·中, 美·蘇의 共存體制는 中蘇對立에 依해 밀받침되고 있고 美日安保體制는 日本 國內에서도 政治的 争点이 되지 않고 있다.

自由民主黨을 中心으로 한 보수세력은 國內 권력구조의 불가결의 토대로서 美·日安保體制를 堅持하려 하고 있고 革新勢力도 이른바 데탕트의 조류 속에서 美·日安保體制를 전면적으로 攻撃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現狀이다.

日本 國內에 核을 들여오는 問題나 오키나와의 美國基地 問題는 아직도 論争의 焦点이 되어 있긴 하나, 그러한 問題들이 美日安保體制의 廢止를 추구하는 決定的 材料로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때 安保問題에 限定해서 보면 日本의 對美外交는 1950年代 以來의 吉田外交 制度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對美外交를 주축으로 하여 다각화하는 外交課題에 適應하려고 하는 基本 性格엔 큰 變化가 없는 것 같다.

最近에 發表된 日本의 外交靑睞에 의하면 日本 外務省은 다음과 같은 外交目標를 提示하고 있다. 즉 ① 美日安保協力體制를 日本 外交의 基盤으로 한다.

② 中共 및 蘇聯과의 安定的 關係를 발전시킨다. 다시 말하면

70年代 後半期 日本의 外交政策은 美日安保体制와 中·蘇等 距離外
交라는 基本 틀 속에서 形成되어 나갈 것이다.

그 다음 韓國問題를 둘러싼 日本의 国内政治의 動向에 對해서
는 자세히 說明을 할 지면이 없기 때문에 結論만 提示하면 다음
과 같다.

日本 国内의 6個의 政黨, 즉 自由民主黨, 社會黨, 公明黨, 共產黨,
民社黨, 新自由클럽 등의 對韓政策을 보면 적어도 아래와 같은 두
가지 點에서 콘센서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南北韓의 平和的 分단 狀態를 지지, 또는 양해하고 있다는 點,
- ② 北韓의 武力侵略에 의한 韓半島의 統一을 명시적으로 主張하
는 政黨은 없다는 點,

이와 같이 安保面에서 본 日本의 對韓政策은 日本의 對美關係
및 国内政治 如何에 따라 變動이 可能한 것인데 大體로 다음과
같은 目標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① 韓半島에 있어서의 戰爭 再發을 防止한다.
- ② 中·蘇의 적의를 초래할 對韓政策을 채용해서는 안된다.
- ③ 韓國(南韓)은 非敵性 政府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要컨데 日本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南北韓의 平和共存=現狀 固定
을 바라고 있다. 日本은 韓半島에서의 戰爭의 結果 中·蘇와의
戰爭에 말려 든다든가 對美關係를 損傷시켜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
다. 第2의 韓國戰爭이 발발했을 때 日本은 美日安保條約에 따른
義務를 遂行해야 하기 때문에 이른바 事前 協議, 在日美基地 使用

의 許可 問題가 따른다.

그런데 이러한 義務遂行도 中·蘇 어느 一方이 第2의 韓國 戰爭에 加担했을때는 日本으로서는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中·蘇 어느 一方이 參加한 第2의 韓國戰爭에 美國이 核武器를 使用하지 않으리라는 保障은 現實적으로 없으며 美國의 核使用에 따른 中·蘇의 보복을 생각하면 日本의 國家利益의 立場에서 볼 때 최악의 事態에 直面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第2의 韓國戰爭에서 日本이 韓國의 防衛를 위해 美國을 支援한다면, 日本國內의 革新政黨 및 대중의 反政府運動이 豫想되며 이러한 條件下에서의 保守黨의 勝利가 전혀 保障될 수 없다.

大部分의 日本國民은 그들이 다른 나라 國民보다 더 平和를 애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위와 같은 理由로 韓半島에서의 戰爭의 再發을 防止하는 것이 日本의 國家利益이라고 보고 있다.

政, 財, 官界의 지배勢力은 韓國의 政治的, 經濟的 安定에 기여하고 北韓의 侵略을 저지하기 위한 美國 및 韓國政府의 努力에 協助함으로써 現狀維持 政策을 支持하고 있다.

社會黨을 中心으로 한 日本의 革新政黨은 日本이 韓國과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것이 戰爭을 유발할 可能性을 높인다고 주장하고 비록 韓國이 不安定하게 되더라도 이른 바 「디스인게이지먼트」 政策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日本外務省의 한 狀況 判斷書는 그들의 韓半島政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比較的 솔직한 情勢 分析을 하고 있다.

① 예견할 수 있는 將來에 韓半島의 統一은 不可能할 것이고 今後 現狀의 改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統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南北韓의 平和共存의 方向이다.

② 韓半島를 둘러싼 國際環境으로 보아 北韓에 의한 共產化 統一의 可能性은 없고 韓國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平和共存의 定着 可能性이 훨씬 높다.

③ 現實의 政策에 있어서는 韓半島에 2개의 政權이 存在하고 武力 衝突에서 平和共存에 이르기까지 南北韓의 對立的 共存이 繼續할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야 한다.

④ 日本이 선택할 수 있는 對韓政策은 드골이 그의 본심과는 달리 아데나워 時代に 一貫하여 獨逸의 統一을 支持한 것처럼 적어도 명분상으로는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을 支持할 必要가 있으나 平和的 統一을 現實의 政策決定의 전제로 선택해서는 안된다. 不可能한 目標인 統一을 내세움으로써 結果적으로 韓半島의 平和共存을 妨害하는 北韓의 政策路線에 말려들지 않은것이 重要하다.

最近 韓國政府가 추진하고 있는 平和共存路線의 範圍內에서 日本의 意圖에 疑惑을 품지않을 정도의 慎重한 表現으로 平和共存路線을 支持해야 한다.

⑤ 韓半島 특히 韓國이 日本의 安保에 重要하다고 하는 명제는 日本을 中心으로 해서 보다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의 基本 전제 즉 아시아에 있어서의 自由世界의 열쇠는 日本이며 日本 防衛를 위해 韓國이 重要하다는 立場에서 判斷해야 한다.

要컨데 日本이 그들의 国家利益의 立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对韓政策은 ① 南北韓의 平和共存을 전제로 하여 ② 韓國이 政治的으로나 社会的으로 安定되고 ③ 日本에 友好的인 非共産 国家로서 存続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日本이 韓半島의 情勢를 判断함에 있어서 南北韓의 統一보다 平和共存 - 現狀維持의 方向을 揆한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論拠와 底意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理由로서 日本이 곤잘 드는 것은 美·蘇·中·日 4 大國이 韓半島의 現狀維持를 바라고있다는 것이다. 韓半島의 緊張이 激化하는 경우의 得失을 따져보면, 우선 蘇聯으로서는 現在 그外交의 最大目標가 美国과의 平和共存이기 때문에 韓半島에 戰爭이 發生하여 베트남戰때와 같이 中共과 競争的으로 北韓援助를 함으로써 美国과 敵對關係를 초래하는 것을 바라지않을 것이다. 中共의 立場에서도 現在의 最大關心事가 北方의 安全保障이기 때문에 美国의 对蘇牽制를 기대하고 있으며 韓半島에서 美国과 對立關係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리고 美国과 日本은 明白히 南·北韓의 平和共存을 바라고 있다.

둘째 日本의 政策樹立家들은, 北韓이 公式的인 宣言과는 달리 어디까지나 武力에 의한 共産化를 바라고 있고, 南韓은 平和共存·現狀維持를 바랄 뿐, 南北韓이 다같이 참된 意味에서 平和的統一의 可能性을 믿지않고 또한 平和統一을 期待하지 않고 있다고 判断하고 있다.

즉 北韓은 어디까지나 平和攻勢를 통하여 緊張緩和무드를 만들고, 韓國의 内部교란에 의한 共產化機會를 노릴 것이며, 南韓은 南北間의 交流의 增大에 의해 南韓의 높은 消費水準과 自由로운 諸制度가 北韓体制를 變質시켜 韓半島에 平和共存을 定着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고있다.

세계 公式的이고 明示的인 表現은 아니지만 日本의 保守政權은 어떤 形態로든 統一된 韓國이 日本의 國家利益의 立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특히 그들이 想定하는 武力統一인 韓半島의 共產化統一은 日本의 安保政策의 變更을 초래한다고 본다.

韓半島情勢에 關한 美日間의 合意로서는 1969年 닉슨·佐藤聲明에서 “韓國의 安全은 日本의 安全에 緊要(essential)하다”고 했고 1975年 「포드·三木」의 合意事項에서는 “韓國의 安全이 韓半島의 平和維持에 必要하며 韓半島의 平和維持는 日本을 包含한 東아시아의 平和와 安全에 必要(necessary)하다”고 하였다.

美·日 首腦간의 合意에서 나타난 日本측의 情勢判斷은 그 表現의 差異에도 不拘하고 基本的으로는 ① 南韓에 있어서의 非共產政權의 維持가 日本의 保守政權에 政治的인 重要性을 가지며, ② 北韓側이 中·蘇의 지원 없이 戰爭을 挑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韓美間의 安保体制가 深刻한 위기에 있을 境遇라고 判斷한 것이다.

이와 關連하여 이른 바 南北韓 等距離外交에 대해서 간단히 言及해 두고자 한다.

南北韓 等距離란 概念은 그 意味 內容이 不明確하여 용어 상에 큰 混亂이 있는것 같다. 원래 이 용어는 70年代 이래 日本의 저널리즘 쪽에서 쓰여 온 것이며 日本政府가 對韓政策으로서 公式的으로 表明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今後 日本의 對韓政策의 基本틀을 南北韓等距離 外交라는 카테고리에서 파악해 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① 日本政府는 南北韓等距離란 말을 公式的으로 使用하고 있지는 않으나, 實際로는 韓半島의 現狀을 “一民族二政權”으로 파악하고 있다.

②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日本國民은 勿論 與野政黨이 韓半島의 現狀維持, 平和共存을 바라고 있다. 심지어 日本 共産黨까지도 北韓의 武力南侵에 의한 韓半島 共産化를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이 專門家の 관측이다. 이려고 보면 한반도의 平和的 分斷에 對해서는 日本의 保守勢力과 革新勢力間에 共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日本政府는 北韓을 平和共存의 틀속에 끌어 넣기 위해서도 北韓과의 교류가 必要하다고 본다.

그런데 南北韓等距離外交는 日本의 立場에서 보아 바람직한 事態 進展이 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나 現實的으로는 日本의 南北韓 等距離 論議에 對하여 北韓은 民族分裂 政策이란 理由로, 韓國은 日本이 韓半島 共産化 통일 戰略을 바꾸고 있지 않은 北韓의 現狀을 그대로 認定하는 것 自体가 韓國의 安保에 不利益을 가져오

는 것이라고 하여 각기 反對를 하고 있다.

따라서 今後 日本의 南北韓等距離外交의 進전 여부는

① 北韓이 革命外交에서 어느 정도로 現實外交로 方向 轉換을 하

느냐, ② 中共·蘇聯의 對南韓 政策의 變更 可能性 如何,

③ ①, ②에 대한 美國의 對應態度 如何에 따라서 決定될 것으로

보인다.

結論적으로 볼 때, 今後 中·長期的으로 볼 때 日本은 韓半島의 平和的인 分斷, 南北韓의 UN同時加入의 境遇 조성에 도움이 되는 範圍內에서, 一時的으로 침체와 進전의 곡선을 그리면서도 基本的으로 南北韓等距離外交로 나아갈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最近 論議되고 있는 美·北韓接近에 대한 日本의 反應도 위에서 指摘한 日本의 對韓半島政策의 틀속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前記한 日本外務省의 狀況判斷書에서는 北韓의 承認問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즉 「北韓의 承認問題는 日本이 單獨으로 질주할 必要가 없다, 이를테면 中·蘇가 韓國을 承認하는 것을 條件으로 하는 南北同時 相互承認論을 高집할 必要는 없으나 明白한 것은 對韓半島政策에 있어서 美·日이 共同步調를 취하고 充分한 意思疎通을 해야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美·北韓接近의 進전에 대해서도 그것이 ① 南·北韓의 平和共存-現狀維持를 指向하는 것이고, ② 美國과의 充分한 意思疎通이 있다면, 肯定的으로 받아들일 可能性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駐韓美地上軍의 撤収에 대해서는 日本은 어떠한 対応態度를 보일 것인가 이 問題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로 日本의 論壇에서 다양하게 論議되었을 뿐 日本으로서의 具體的 政策方向은 提示될 수 없었으며 대체로 美國의 撤収政策에 順應해 온 것 같다. 實際로 韓半島에 緊急한 事態가 發生할 경우라도 日本이 軍事·安保的 側面에서 韓國을 支援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勿論 北韓이 南韓에 대하여 軍事的인 侵略을 敢行하여 美國이 韓美防衛條約에 의거하여 在日美軍基地를 使用하는 軍事行動을 취했을 경우, 日本은 美日安保條約에 依拠하여 美國에 積極적으로 協力해야 하며 또 協力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現在 日本의 法律制度, 國內政治狀況, 國民感情等과의 관련때문에 매우 어려운 問題點을 안고 있다. 이를테면 美國이 兵站支援을 위해 在日美軍基地를 使用하는 것은 日本과의 事前協議의 對象이 되지않으나, 戰鬪作戰行動을 위하여 在日美軍基地를 使用할 경우에는 美國은 日本에 事前協議를 구해야 한다. 이 경우 日本이 事前協議에 yes를 할 것인가 No를 할 것인가도 事實은 明確치 않다. 安保問題를 둘러싼 韓日協力を 위하여 어느정도의 代價를 支払하여 어느程度의 危險을 무릅쓸 용의가 있느냐하는 具體的 問題에 대해서는 日本政府로서는 明確한 政策이 있을 수 없으며, 설령 政府레벨의 妥協이 된다하더라도 日本 國內政治에 深刻한 內紛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때 駐韓美地上軍撤収 및 그와 關聯된 韓半島의 安保에

대해서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두가지 點에 관한 國際環境造成에 協力하는 道以外에 現實적으로 明白한 代案이 없을 것이다.

① 駐韓美軍 撤収는 南北韓의 軍事的均衡의 致命的인 變化를 意味하지 않은 方法, 그리고 韓國側의 心理的 安定이나 自信에 重大한 衝激을 주지않은 方法으로 遂行되어야 한다.

② 駐韓美軍 撤収는 韓國軍近代化計劃의 完了와 타임잉을 맞추어 漸進적으로 遂行되어야 한다.

㉒. 参考文献 (單行本, 論文, 雜誌)

- ① 「わわ外交の近況」- 外交青書 - 1976年版 上巻 日本外務省編
- ② 「防衛白書」 1977年版 日本防衛庁編
- ③ 「日本防衛の新構想」 村上薫 1973 サトマル出版会
- ④ 「和の国防白書」 海原治 1975 時事通信社
- ⑤ 「対米外交・対中外交」 1971, サトマル出版会
- ⑥ 「海洋國家 日本 の 構想」 1965 高坂正堯 中央公論社
- ⑦ 「南北朝鮮 日本外交」 「世界」 1975年 10月号
- ⑧ 雜誌 「公明」 (公明党機関誌)
- ⑨ 雜誌 「革新」 「改革者」 (民社党機関誌)
- ⑩ 「月刊社会党」 (社会党 機関誌)
- ⑪ 「赤旗」, 「前衛」 (共産党 機関誌)
- ⑫ 「自由民主」 (自民党機関誌)
- ⑬ 「日本にれみる 保守と革新」 1973 日本經濟新聞社
- ⑭ 「韓国, 美国・日本」 1977 韓培浩, 李相禹, 崔相竜
亞細亞政策研究院 出版部
- ⑮ Yong C Kim Japanese-Soviet Relations 1974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Georgetown Univer-
sity, Washington D. C.

- ⑩ Yong C Kim ed., Major Powers and Korea 1973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Silver Spring, Maryland.
- ⑪ Robert A Scalapino "Asia and the Major Powers" 1972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Washington, D. C.
- ⑫ William J. Barnds "Japan and It's Mainland Neighbours: An
End to Equidistance?" International Affairs, January
1976.
- ⑬ Kazushige Hirasawa "Japan's Emerging Foreign Policy" Foreign
Affairs October 1975.

5. 韓國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邇情勢觀

(金達中 : 延世大學校 政法大 副教授)

가. 韓國의 長期政策 目標

- (1) 安保領域
- (2) 主權領域
- (3) 人的資源領域
- (4) 非人的 資源領域

나. 韓國의 政策遂行 能力

- (1) 安保領域에 있어서의 政策遂行能力
- (2) 主權領域에 있어서의 政策遂行能力
- (3) 人的 및 非人的 資源領域에 있어서의 政策遂行 能力

다. 韓國과 다른 主要國들과의 傳統的 關係

- (1) 安保領域
- (2) 主權領域
- (3) 人的 및 非人的 資源領域

라. 美·北韓 接近 可能性·條件 및 予想展開樣相

마. 蘇聯의 東北亞政策 轉換 可能性

바. 美國의 東北亞政策 展望

사. 中·日接近에 대한 各國의 反應

아. 北韓의 對南戰略 展望

자. 參考文獻

가. 韓國의 長期政策目標

(1) 安保領域

長期的 次元에서의 韓國의 安保狀況은 네가지 不安定 要因에 의하여 영향 받음이 크리라고 豫測한다. 첫째는 東北亞 4強体制의 變化可能性이다. 東北亞 4強体制가 作用하는 東亞細亞地域에서 主要強大國의 戰略的 利害關係가 직결되어 있는 韓半島, 台灣地域 中蘇國境地域, 그리고 東南亞에서의 制限的 軍事衝突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둘째는 東北亞 4強体制의 再編成 可能性이다. 現在 比較的 安定되어 作用하고 있는 4強体制는 앞으로도 계속 安定的으로 發展할 것으로 보나, 長期的으로 強大國間의 聯合 或은 同盟關係의 再編成 可能性을 完全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毛澤東死後 새로운 中共 指導体制에 의한 새로운 中·蘇聯合体制의 形成, 台灣問題 해결을 통한 美·中共聯合形成, 平和友好條約 締結을 통한 日·中共聯合, 或은 經濟開發을 위한 日·蘇聯合形成 可能性은 東北亞 4強体制를 變化시키고 不安定化시킬 要因들이 될 수 있다.

세째는 美國이 아시아로부터의 후퇴와 美國의 役割에 대한 日本의 代役 可能性이다. 아시아에서 日本이 점차 美國의 役割을 代行하게 되면 日本의 再軍備 내지 核武器化는 피할 수 없는 趨勢라고 보며 日本의 軍國主義 부활 可能性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이러한 日本의 再軍備化는 東北亞地域에서 日本·中共

및 蘇聯間의 軍備競争을 초래하게 되고, 아시아에서의 役割을 감소하려는 美國도 다시 強大國 軍備競争에 말려들므로해서 아시아全般에 걸친 새로운 緊長造成을 이룰 可能性이 높다.

네째는 北韓의 對南戰略의 不變性이다. 北韓의 最上의 目標로서 韓半島 赤化統一을 위하여 諸般條件이 可能하다고 判斷될 때 軍事的 方法에 의한 武力統一 或은 人民革命戰略 등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韓國安보를 長期的 次元에서 危脅을 줄 이러한 不安定 要因을 勘案하여 韓國의 安보領域의 政策目標가 樹立된다. 첫째 目標는 自主國防目標의 達成이다. 이는 곧 北韓이 外部強大國 勢力의 支援없이 단독으로 對南武力 挑發이나 全面 南侵을 감행했을 때 이를 軍事的으로 저지 격퇴시킬 수 있는 防衛能力(Defensive Capability)을 의미하며, 동시에 이러한 防衛能力을 示顯시킴으로서 北韓의 武力南侵이나 武力挑發을 事前에 견제시킬 수 있는 抑制能力(Deterrent Capability)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目標는 韓半島 周辺 4 強들이 韓國의 生存權을 존중하고 韓國의 領土主權을 저해하지 못하게 하는 拒否能力(Denial Capability)의 향유이다. 동시에 韓國의 拒否能力은 東北亞 周辺 4 強體制를 韓國의 安보와 韓半島 平和體制樹立을 위하여 活用하기 위한 韓國外交의 物理的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세째 目標는 韓國의 對北韓 및 對中·蘇를 겨냥한 防衛能力, 抑制能力 및 拒否能力을 增大 및 補完시키기 위한 韓美軍事同盟體制

의 効率的 유지이다. 駐韓美地上軍 減縮에 따른 韓美軍事協力体制의 再調整, 韓國軍 軍裝備의 現代化 및 軍事借款의 効率的 導入을 위한 韓·美軍事協力の 모색은 安保領域에 있어서 중요한 政策目標가 되는 것이다.

네째 目標는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東北亞 4強体制를 外交的으로 活用하려는 目標이다. 이를 위하여 韓半島 平和維持에 直接연관있는 強大國들과 南北韓을 包含한 4者會談 或은 6者會談 등의 開催를 계속 追求할 것이며, 過渡的으로 南北韓 및 美國으로 이루어지는 3者會談의 開催도 모색되어 질 것으로 본다. 韓半島 平和를 定着시킬 수 있는 方案이라면 會議當事者의 類型을 불구하고 伸縮性있게 대응할 것으로 豫測된다.

다섯째 目標는 韓半島 平和를 南北韓이 보장하는 相互不可侵協定 締結 目標이다.

여섯째 目標는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에 대비하기 위한 安保 目標이다. 이를 위하여 두가지 政策目標가 形成 移行되고 있다. 하나는 持續的인 經濟發展을 示顯시킴으로써 分配를 公正히 增大하고 社會福祉를 실현시킴으로써 社會安定을 꾀하는 政策目標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經濟發展의 기반위에 政治發展을 이룩함으로써 國民의 合意와 支持의 기반을 強化시키는 政策目標인 것이다.

(2) 主權領域

韓國主權領域에 있어서 長期的이며 궁극적 目標는 南北韓 統

一을 통한 하나의 主權國家를 形成시키는 目標이다. 統一된 主權國家의 形成은 하나의 政治的 過程이다. 이러한 過程을 통한 하나의 統一主權國家 形成 方案으로서 韓國은 三大統一原則을 政策目標로 追求할 것이다. 먼저 南北韓의 平和共存 狀況을 이룩하기 위하여 南北韓不可侵協定을 締結하고, 이를 기반으로 南北韓間의 交流를 增大하고 南北韓 協商을 持續적으로 發展시켜 最後 段階에 가서 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 總選舉를 통하여 統一韓國을 이루는 目標이다.

三大統一政策의 궁극적인 實現을 위하여 過渡的 過程으로서 韓半島에 2個의 主權國家를 認定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南北韓 交叉承認政策目標와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에 同時加入政策目標를 계속 追求할 것이다.

軍事安保와 經濟活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領海에 대하여 이미 12海里原則을 宣布한 바 있다. 그러나 長期的 次元에서 볼 때 200海里 經濟領域 宣布나 黃海에서의 中間線原則 採択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3) 人的資源領域

韓國은 對外水準이나 民間水準에 있어서 國際協力을 急速度로 增大하는 것이 政策目標이다. 유엔專屬 專門機構는 勿論 政府間 國際機構에의 포괄적인 參與와 役割이 增大될 것이다. 國際民間團體 參與와 國際會議參與를 계속 增大시킬 것이다.

國際友誼나 國際的인 國威宣揚을 위한 文化交流, 民間外交 및 홍보의교를 積極化할 것이다.

長期的으로 韓國의 人口政策은 移民政策을 더욱 積極化시킬 것이다. 또한 海外雇傭 및 就業을 통한 海外人力進出 政策을 積極的으로 推進시킬 것이다. 동시에 韓國人力의 訓練을 위하여 留學政策을 政府와 民間水準에서 積極 擴大할 것이며 海外頭腦의 유치 활용을 위한 政策도 더욱 果敢히 移行될 것이다.

長期的 次元에서 韓國의 人的資源이 世界各地로 대량 擴大될 展望下에 交民政策, 領事政策 및 交民權益 保護를 위한 教導, 保護 및 統制政策이 擴大 發展될 것이다.

(4) 非人的 資源領域

世界經濟의 國際分業 擴大 趨勢와 世界 各國의 經濟協力 增大 政策에 따라 韓國은 持續的으로 交易擴大 政策을 追求할 것이다. 또한 開發途上國들에 對한 韓國의 經濟援助 政策도 그 規模를 점차 擴大할 것으로 展望된다.

韓國은 交易擴大를 包含한 國際經濟協力 增大를 위하여 雙務間 協定 및 多者間 協定에 더욱 積極的으로 參與하고 그 役割을 增大할 것이다. 또한 韓國은 地域經濟協力體制를 積極的으로 모색할 것이다. 中東과의 經濟協力の 經驗을 土台로 아프리카地域, 東南亞地域 그리고 南美洲地域과의 經濟協力を 더욱 本格化할 것이다. 長期的으로 中共과 蘇聯과도 資源開發을 위한 經濟協力を 追求할 것이다.

長期的으로 韓國 經濟의 核心은 安定되고 持統的인 資源의 供給
源을 確保하는데 있다. 資源確保를 위한 外交와 새로운 資源開發을
위한 海低資源開發 및 南極資源開發에 積極 參與할 것이다.

韓國은 계속 資源과 技術을 導入할 것이나 同時에 開發途上國家
들에 대한 特別 資源保有開發途上國家들에 대한 資本 및 人力輸出
을 增大할 것이다.

나. 韓國의 政策遂行能力

政策遂行能力이란 政策目標 追求에 投入 可能한 資源을 의미한다. 資源에는 客觀적으로 測定이 可能한 資源이 있으며 客觀的 測定이 어려운 資源이 있다. 前者는 國力の 客觀的 要素가 되는 人口, 부존자원, 科學 및 技術 및 軍事力으로 產出이 可能한 能力을 의미하며, 後者는 政策目標 達成을 위한 主觀的 意志를 뜻한다. 즉, 國民의 士氣, 團結 및 指導力을 의미한다.

(1) 安衛領域에 있어서의 政策遂行能力

64 萬여명의 現役兵과 300 萬명 이상의 豫備軍 및 民防衛體制를 包含한 戰時動員體制는 韓美軍事同盟體制에 입각한 駐韓美戰鬪兵力과 韓美合同으로 보유하고 있는 軍裝備 火力으로 北韓 武力南侵을 대응하는 防衛力과 抑止力을 維持할 수 있다고 본다.

自主國防의 核心을 이루는 防衛産業은 소정의 目標가 達成될 수 있다고 본다. 韓國의 防衛産業은 供給과 需要側面에서 可能하다.

防衛産業은 供給的 側面에서 ①經濟規模의 크기와 ②産業構造의 性格에 달렸다. 第4次經濟計劃期間에 韓國의 經濟規模는 GNP 600 億弗에 肉迫할 것이며 이러한 經濟規模는 防衛産業 遂行을 可能하게 할 것이다.

또한 需要的 側面에서 第4次經濟計劃期間에 GNP는 平均 9.2% 增加될 것이며, 政府豫算은 11.6%로 增加할 것이다. 이 期間에 있어서 GNP對 國防費는 平均 6.52% 水準을 維持할 것으로 보며

政府豫算中 國防費가 차지하는 比率은 平均 34.56%로 되어 있다. 결국 防衛産業에 대한 政府側需要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國民의 担稅率이다. 1981年까지 國民의 年平均 租稅負擔率은 19.74%로 計劃하고 있다. 이러한 數値는 防衛産業의 可能性을 보장해 주고 있다.

韓美軍事協力체제도 効率的으로 維持시킬 수 있는 能力이 있다. 이러한 能力은 기본적으로 韓半島 平和維持와 東北亞 安定이 美國의 國家利益에 일치되며 韓國에서의 美軍事力 維持가 美國의 戰略에 一致하는 데서 연유한다. 또한 朴東宣事件 등을 위요한 韓美 현안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면서 앞으로 兩國間의 協力체제는 더욱 効率的으로 發展될 수 있다.

政治·外交的 次元에서 東北亞 安定을 위한 美國의 政策이 積極的으로 展開될 可能性이 많다. 美·日間의 傳統的 軍事同盟체제를 기반으로 美·中共關係 正常화와 日·中共平和友好를 연결시키는 美國-日本-中共의 協力關係 發展은 東北亞 安定에 肯定的으로 寄與할 것으로 본다.

美·蘇間의 緊張緩和와 協力關係 擴大 그리고 美·中共, 日·中共間의 協力增大는 北韓의 好戰的 行態를 抑制하는 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2) 主權領域에 있어서의 政策遂行能力

1980年代 初期에 있어서 南北韓間의 經濟發展의 隔差는 北韓

으로 하여금 現狀維持政策을 추종하게 함으로써 北韓自体 体制維持에 급급하게 만들 것으로 본다. 南北韓 對比에 있어서 GNP 586.6 億弗 對 85.2 億弗, 經濟成長率 9.2% 對 6%, 輸出 202.4 億弗 對 9 億弗, 強鐵生産能力 1,150 万톤 對 700 万톤 등의 격차를 만들 수 있는 韓國의 經濟力은 北韓이 平和共存政策을 수락하는 방향으로 行態를 變化시킬 것이다.

南北韓 外交力量比較 역시 韓國이 우세하다. 韓國은 70 個의 常駐大使館(北韓 66), 27 個의 兼任大使館(北韓 16), 2 個의 總領事館, 3 個의 通商代表部(北韓 5) 등을 합쳐 海外公館의 南北韓 對比에서 106 對 99로 韓國이 우세하다. 이러한 우세한 能力으로 서 對西方 및 非同盟外交를 展開해 나갈 것이다.

(3) 人的 및 非人道 資源領域에 있어서의 政策遂行能力

韓國의 人的資源의 우수성으로서 人的資源의 國際協力 및 國際交流의 達成은 무난하리라고 본다.

韓國의 經濟는 産業基盤이 近代化하고, 輸出이 持續적으로 增大하며, 社会間接資本施設의 扩充과, 開放体制下에서의 國際協力の 擴大를 통하여 고도의 經濟發展 水準을 지속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外資에 대한 높은 依存度, 國際收支의 赤字, 工業原料의 높은 對外依存度, 그리고 國際인프레와 景氣變動에 따른 영향의 불확실성 등 政策遂行能力的 制約要因도 동시에 存在하고 있다.

다. 韓國과 다른 主要國家들과의 傳統的 關係

(1) 安 保 領 域

安 保 領 域에 있어서 韓國과 가장 緊密한 傳統的 關係를 維持하고 있는 나라는 美國이다. 2次大戰中과 그 직후의 美行政府의 續속정책은 韓半島 分斷을 초래하고 나아가 6.25 戰爭의 原因이 되었으며, 北韓의 武力南侵으로부터 韓國을 保護해 준 나라도 美國이다. 韓半島 平和를 維持해 주고 있는 休戰協定體制의 我側 一方當事者도 美國이며 1954年 韓美相互防衛條約을 締結하여 同盟體制에 입각한 軍事支援을 지속해 온 나라도 美國이다.

美國 다음으로 安 保 領 域에 있어서 韓國과 密接되어 있는 나라는 日本이다. 1969年 닉슨-사토共同聲明에서 韓國의 安全은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고 밝힌 바 있다. 韓半島에서 戰爭 再發時에 美國에 의한 軍事介入은 自動的이며, 美·日相互防衛條約에 의하여 日本에 主權하고 美戰鬪兵力과 基地使用은 불가피하게 된다. 東아시아地 域에서 美國의 軍事戰略은 韓國·日本을 거시적으로 包含한 하나의 무대에서 이행되기 때문에 日本과 韓國은 戰略概念에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韓國과 日本은 오랜 歷史속에서 심리적 갈등을 서로 느끼고 있다. 36年間의 植民統治는 韓國人들에게 韓半島에서 日本의 軍事 및 政治的 役割에 회의와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蘇聯과 中共은 1970年代 緊張緩和가 이루어 질때까지 韓國과 敵對關係에 있어 왔다. 韓國人들에게 蘇聯은 韓半島 分斷의 元凶으

로 지목되고 있으며 北韓을 支援하여 武力南侵을 일으킨 敵으로 간주되어 왔다. 中共 역시 韓半島에서 韓國과 싸운 敵對國家이며 休戰体制의 共產側 当事者의 하나로 되어 있다. 또한 北韓을 軍事的으로 또는 政治 外交的으로 支援해 주고 있는 北韓의 同盟國들이다.

(2) 主權領域

主權領域에 있어서도 韓國과 가장 緊密한 國家는 美國과 日本이다. 美國은 大韓民國政府樹立에 있어서도 決定的인 役割을 해왔다. 日本 역시 1965年 韓·日國交正常化 以後에 韓國을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해 온 나라이다.

美國과 日本은 傳統的으로 韓半島에서 韓國을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하고 있는 反面에, 中共과 蘇聯은 北韓을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하고 있으며 韓國과의 一切의 政治 外交的 接觸이나 인정을 회피해 오고 있다. 이로서 韓國側 提案인 交叉承認問題나 當事國會談 등에도 일체의 肯定的인 反應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 漁業이나 海低資源開發 등 海洋資源開發에 있어서 主權紛爭의 發生 可能性도 매우 높다고 본다.

(3) 人的 및 非人的 資源領域

人的 및 非人的 資源領域에 있어서도 가장 緊密한 關係에 있

는 나라가 곧 美国과 日本이다. 日本에 가장 많은 韓人교포들이 영
주하고 있고 그 다음 地域이 美国이다.

同時에 韓國과 가장 많은 人的 交流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美国과 日本이다. 또한 韓國이 文化的 影響을 가장 많이 받은 나
라도 戰前의 日本과 戰後의 美国이다.

美国과 日本은 韓國의 가장 緊密한 經濟協力 國家들이다.

反面에 中共과 蘇聯은 人的 및 非人的 資源領域에 있어서 韓國
과의 關係가 그동안 全無했다. 조난 어부나 最近 大韓航空 탑승자
및 승무원들의 人道的 見地에서의 送還, 그리고 극히 制限된 範圍
내에서의 体育人士 및 實業人들의 蘇聯訪問許用 등이 있어 왔다.

라. 美·北韓 接近 可能性·條件 및 그 予想 展開樣相

美·北韓 接近은 하나의 可能性을 넘어 實際 現實性으로 대두되었다.

美國과 北韓이 그들 兩國間의 接近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條件이 상이하다. 北韓이 제시하고 있는 條件은 1974年3月25日 最高人民會議 第5期 3次會議에서 행한 허담 報告中 現 軍事協定을 平和協定으로 轉換하기 위해 美國과 直接 平和協定 締結을 正식으로 계 의한데 나타나 있다. 즉, ①美國은 “朝鮮” 內政에 干涉해서는 안 되며, ②武力增強과 軍備競爭을 中止하고 韓國에 一切의 武器와 軍需物資의 반입을 中止하고, ③韓國으로부터의 早速한 美軍撤收, 그리고 ④韓國에서의 美軍撤收後 韓半島 全域에 걸쳐 어떤 外國의 軍事基地나 作戰基地로 使用될 수 없음을 提議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北韓은 對美平和協定 提議에서 韓國 代表의 參席을 反對하고 있다.

이에 對하여 美國側은 1975年9月22日 키신저 美國務長官의 유엔總會 演說을 통하여 南·北韓과 美·中共이 參加하는 4個休戰當事國會談開催를 提議하고, 同年 9月30日 記者會見에서 키신저長官은 休戰當事國會談의 3段階推進方案으로서 첫째 段階로 南北韓 豫備會談을 提示하였다.

1977年5月23日 카터行政府는 國務省 發表를 통하여 美·北韓接 觸 條件으로 韓國代表의 參與를 提示하였다.

이러한 美国側의 条件은 1978年3月7日 카터·티토頂上會談에서 카터는 南北韓 및 美国이 參席하는 3者會談開催를 提議하였다. 美·北韓接觸에 있어서 韓國參與条件은 3月30日 美国務省 發表로 再確認되었다.

美·北韓關係의 發展은 兩側이 각각 提示하고 있는 条件중의 核心인 韓國參與問題가 해결되기 이전에 政府水準의 正式 美-北韓會談은 開催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美国의 對共產 未修交國家와의 關係改善의 一般的 趨勢에 비추어 다음 몇가지의 段階로 分析 豫測할 수 있다. ①從前 敵對國家들과의 關係改善方針 宣言, ②從前 敵對國에 對한 美国人 旅行禁止措置 解除, ③記者 및 學者 訪問許容, ④運動選手의 交換 訪問 및 國際競技 參席, ⑤政府支援없는 民間水準의 交易許容, ⑥輸出禁止品目 緩和 내지 解除, ⑦公式政府名稱 号称, ⑧政府高位級의 秘密接觸 및 協商, ⑨秘密協商의 公式化, ⑩外交關係樹立 및 經濟, 文化外 多方面 交流 協力增大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以上の 關係發展의 類型에서 美·北韓關係는 ①, ②, ③, ④등이 이미 實現 豫定으로 되어 있고 ⑤, ⑥, ⑦, ⑧, ⑨, ⑩등이 可能性으로 남아 있다.

마. 蘇聯의 東北亞政策 轉換 可能性

蘇聯은 그동안 東北亞 國際秩序의 安定을 維持해 온 4 強体制의 維持를 계속 존중할 것으로 본다. 4 強体制 維持의 범주 속에서 中共과는 國境紛爭問題에 있어서 소강상태를 持續할 것이나 政治 外交的 次元에서 中共포위의 아시아集團安全保障体制構想을 계속 具體化 推進시킬 것으로 본다.

美國과는 汎 世界的 次元에서의 戰略武器規制에 있어서 緊張緩和 政策을 追求할 것이나 西太平洋地域에서 海軍力에 의한 勢力擴張은 계속 追求할 것이다.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서 日·蘇平和條約 締結과 시베리아資源 共同開發에 역점을 두어 政策을 推進할 것으로 본다.

아시아地域에서 美·中共外交正常化가 이루어지고 日·中共平和友好 條約의 締結로 인한 美·日·中共聯合戰線이 形成되는 경우 이러한 對蘇 聯合戰線의 破壞를 위하여 蘇聯은 北韓을 軍事的으로 支援하는 가운데 韓半島에서 武力紛爭을 惹起시킬 可能性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蘇·北韓의 密着과 北韓武力攻擊에 의한 紛爭再發을 防止하기 위하여 美國·日本 및 中共은 北韓을 견제하고 회유하는 政策을 追求할 것이다. 그 方法中의 하나가 3者會談의 推進 및 美·日에 의한 北韓接近政策으로 具體化될 可能性이 높다.

바. 美国의 東北亞政策 展望

美国은 東北亞 4強体制의 安定的 維持를 위하여 계속 努力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東北亞 4強体制의 基調가 되는 美·日同盟体制를 계속 維持하고 日本의 급격한 軍備強化 및 核武器化를 防止할 것이며, 韓國에서의 美地上軍의 段階的 減縮은 이행될 것이나 海空軍은 반대로 더 增強될 것이며, 美地上軍도 長期間 계속 주둔할 可能性이 높다.

中共과는 점차적으로 外交關係를 樹立할 것이며, 蘇聯과는 汎世界的 戰略武器 規制精神을 아시아地域에 까지 擴大할 것으로 본다. 이러한 狀況은 長期的으로 東北亞地域의 軍事的 緊張緩和을 위한 軍備減縮會議로까지 發展될 可能性이 있다.

美国은 東北亞 4強体制의 安定을 저해하지 않는 範圍에서 蘇聯의 軍事力 膨脹에 對항하기 위한 美国—日本—中共間의 協力關係를 擴大할 것이다.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한 方法으로 提議되어 왔던 交叉承認政策을 美国이 能動的으로 주도적으로 행사할 可能性이 있으며, 日本 역시 이러한 美国側 主導에 同조하던지 或은 美国보다 先行해서 移行할 可能性이 높다.

사. 中·日接近에 對한 各國의 反應

日·中共平和友好條約은 1978 年內에 締結 可能性이 높다.

蘇聯은 日·中共平和友好條約中 核心內容인 反霸權條項을 蘇聯에 해당하는 日·中共聯合戰線 形成으로 간주하고, 日·中共平和友好條約 締結을 저지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美國은 日·中共平和友好條約 締結이 아시아에서 蘇聯의 軍事力 膨脹을 抑制하려는 戰略에 補完的인 內容으로 간주하고 있다.

蘇聯은 日·中共平和友好條約 締結을 防止할 수 있는 方法으로 北方領土를 日本에 반환하고 日·蘇平和友好條約을 先行해서 締結하 는 方法이 있다. 그러나 現 狀況으로 보아 日·蘇條約의 急速한 締結 可能性은 없다고 본다.

아.北韓의 對南戰略 展望

北韓의 對南戰略의 短期的 展望으로는 ①南北對話 거부, ②對美平和協定 締結 推進, ③軍事力 增強, ④政治的 對南 心理戰 展開, ⑤對外的인 立場 평화공세 展開 등으로 展望할 수 있다.

그러나 長期的으로 볼 때 韓國의 經濟發展과 南北韓 經濟力 隔差의 深化, 韓國 自主國防力の 增強, 韓美 軍事協力体制의 效率性, 그리고 東北亞 4強体制의 安定 등으로 北韓의 對南戰略은 그들의 最上目標인 韓半島 武力赤化統一目標을 포기하고 最下目標인 北韓体制 維持를 위한 現狀維持政策으로 轉換할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의 對南戰略은 ①南北對話의 再開, ②休戰体制를 恒久的인 平和体制로의 轉換을 위한 南北韓間의 不可侵協定 或은 平和協定の 締結, ③韓半島平和安保를 보장하는 關連 強大國과의 當事者會談 參與로 發展될 것이다.

자. 参考文献

- Ralph N. Clough, Deterrence and Defense in Korea: the Role of U.S. Forces, Washin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6.
- Ralph N. Clough, East Asia and U.S. Security,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 R. Clough, A.D. Barnett, M. Halperin, J. Kahan, The United States China, and Arms Control,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5.
- W.M. Carpenter, Young C. Kim, The Maintenance of U.S. Forces in Korea, Policy Paper, SRI, 1974.
- Robert Simmons, "The Peking-Pyongyang-Moscow Triangle," Current Scene, Nov. 7, 1970.
- Joseph C. Kim, "North Korea: Between Moscow and Peking," China Quarterly, No. 31 (July-Sept., 1967).
- R. Pearson, ed., Korea in the World Today, Washington D.C. : Council on American Affairs, 1976.
- S. Harrison, "One Korea," Foreign Policy, Winter 1974-1975.
- Young C. Kim ed., Major Power and Korea, Silver Spring, Md: The Rese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1973.
- B.C. Koh, The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Y: Praeger, 1969.
- R.A. Scalapino, Asia and the Road Ahea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 李相禹, 韓國의 安保環境, 서울: 書香閣, 1977.
- 金達中, 韓國外交의 進路, 外交安保研究院, 1977.

)

6. 北韓의 立場에서 본 韓半島 및 周辺情勢觀

(金學俊 : 서울大 社會科學大 政治學科教授)

가. 概 觀

나. 北韓의 長期政策目標

(1) 體制保存의 目標

(2) 南韓 共產化의 目標

다. 北韓의 政策遂行能力

라. 다른 主要한 國家들과의 傳統的인 關係 :

中·蘇의 關係를 中心으로

마. 下記 事態에 대한 北韓側 態度

(1) 美·北韓 接近 可能性 : 條件 및 그 予想展開樣相

(2) 蘇聯의 東北亞政策 轉換 可能性 및 이에

대한 各國의 對備戰略 予想

(3) 美國의 東北亞政策 變化 展望과 이에 대한

各國의 對備策

(4) 中·日接近에 대한 北韓의 反應

바. 參考文獻

一、總論

二、本國

三、外國

（一）總論

（二）本國

（三）外國

（四）本國

（五）外國

가. 概 觀

北韓이 對南戰略을 決定함에 있어서 考慮하는 狀況은 ① 北韓內의 條件들 ② 南韓內의 條件들 ③ 國際環境의 條件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北韓이 이러한 條件들에 對해 어떠한 認識을 갖고 있느냐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北韓의 對南戰略을 이해하는 첫 걸음이라고 하겠다.

여기서는 주로 北韓의 韓半島 및 周邊情勢觀을 筆者에게 주어진 몇가지 争点を 中心으로 살피고자 한다. 우선 全体的으로 볼 때 北韓은 韓半島問題에 대한 周邊強大國의 関心이 漸次 높아져 가고 있다고 判斷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周邊強大國의 関心은 ① 韓半島의 現狀變更 보다는 韓半島의 現狀維持에, 또는 「改善된 現狀維持」 또는 「現狀維持 위에서의 改善」에 있다는 점 ② 이것은 대체로 南北韓의 平和共存의 制度化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 ③ 駐韓美地上軍의 撤収는 가까운 將來에는 實現되어서는 困難하다는 점 등에 있다는 것을 北韓은 認識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北韓은 비록 美國과의 關係改善이라는 有利한 側面이 展開되고 있다고 判斷하면서도 그것이 종국적으로 南北韓의 平和共存의 制度化로 나타나지 않도록 最大의 努力을 경주할 것이 예상된다.

즉 韓半島에서의 現狀變化를 美·北韓의 關係改善, 이에 이은 日·北韓의 關係改善,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大韓民國의 國際的 地

位의 弱化에 限定하려 할 뿐이며, 그 現狀變化가 大韓民國의 蘇聯
과의 關係改善 또는 大韓民國의 中共과의 關係改善에 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努力할 것이다.

나.北韓의 長期政策目標

李永鎬교수는 北韓政權의 基本的이며 一次的인 對南政策目標를 體制保存의 目標과 南韓共産化의 目標로 나뉘 說明하고 있는데,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體制保存의 目標

北韓政權의 가장 一次的인 政策目標는 自我保存 또는 生存이다. 그런데 北韓體制의 維持에 대한 威脅과 支持는 內生的인 것일 수도 있고 外生的일 수도 있다. 여기서 外交政策의 機能은 內部的 威脅을 最少化하는 반면에 外部的 威脅을 最大化하는 것이다.

過去에 北韓의 政治體制에 대한 威脅은 주로 內生的인 것이었다. 現在로서는 內生的 威脅이 效果的으로 減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그런 牽制가 恐怖와 暴力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威脅은 항상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北韓은 그 存在期間동안 자초한 경우(즉 韓國戰爭)以外에는 外部로부터 큰 威脅을 받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北韓은 未來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美地上軍의 撤収는 좋지만 韓國의 独自の인 防衛能力의 增強 때문에 南北간의 軍事的 均衡이 다소 北韓쪽으로 기울어지는 現在の 狀態에서 韓國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北韓은 体制保存의 目標라는 觀点에서 어떤 行動을 취할 것인가. 모험적인 挑発보다는 自體의 安全이라는 보다 더 신중한 行動을 취할 것이다. 힘의 均衡이 韓國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되기 이전에 北韓이 先制攻擊을 기도할 위험이 있다고 보는 觀測者들도 있으나, 특히 美國의 對韓防衛公約과 駐韓美軍만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코스는 自滅的인 코스가 될 것이다. 이 점을 北韓의 指導者들도 充分히 認識하고 있을 것이다.

(2) 南韓共産化의 目標

体制의 維持·保存이라는 一次的인 目標外에 보다 積極的인 立場에서 北韓은 南韓의 共産化라는 또 하나의 基本的인 目標를 갖고 있다. 北韓의 支配黨인 朝鮮勞動黨의 「당규약」前文은 「朝鮮勞動黨의 당면목적은 共和國 북반부에서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範圍에서 民族解放, 人民民主主義 革命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産主義 社會를 建設하는 데 있다」고 宣言하고 있는 것이다.

結論적으로 말하자면, 北韓政權의 基本目標은 소극적으로는 北韓을 外部로 부터 지키고 内部의 抵抗이나 顛覆企圖를 抑制함으로써 現体制를 維持·存続하는 것이며, 積極적으로는 南韓을 共産化함으로써 全韓半島에 그 支配를 擴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勿論 北韓政權도 經濟發展 등 다른 政策目標을 추구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北韓体制의 維持와 南韓의 共產化 併合이란 目標만큼
一次的인 意味를 갖는 것은 아니다.

다.北韓의 政策遂行能力

北韓의 政策遂行能力은 특히 情勢의 變化에 대한 適應能力이란 面에서 肯定的이라고 할 수 있다. 北韓의 過去의 對外行爲를 보면 情勢의 變化에 대해 制限된 것이긴 하지만 相當한 適應能力을 보였던 것이다. 이에 비추어 北韓의 政策目標나 戰略은 對南側面에서 어떻게 展開될 것이라고 보아지는가? 역시 李永鎬教授의 評価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北韓의 戰略修正은 별로 눈에 띠지 않게 서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너무 오래 동안 南韓의 共產化를 피해 왔기 때문에 慣性의 法則에 따라서도 갑작스런 戰略修正은 기대하기 어렵다. 더우기 北韓政權의 存在理由를 남조선解放과 결부시켜 왔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는 것은 北韓政權의 正統性에 打擊을 줄 것이며 北韓의 支配集團内部에서 반발을 惹起하고 國民의 눈에서 金日成指導体制의 威信을 격추시킬 危險을 안고 있는 것이다.

둘째, 비록 눈에 띠지 않는 완만한 戰略修正이지만 그 修正의 方向은 韓半島의 現狀을 受諾하는 쪽으로 흐를 것 같다. 앞에서 우리는 北韓政權의 最大目標은 南韓의 共產化이며 最少目標은 自體의 保存이라고 한 바 있다. 北韓이 진정한 意味의 平和統一을 추구하는 것은 그 自體의 保存마저 威脅하는 結果에 到達될지 모르므로 情勢의 불리한 推移에 접하여 오히려 北韓은 보수적인 目標인 自體

保存의 優先主義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長期的인 推測임은 勿論이다.

세째, 느슨하고 누적적인 戰略修正을 하면서 情勢를 觀望하다가 만약에 北韓內, 南韓內, 그리고 國際環境의 條件이 다시 유리하게 역전되면 北韓은 그 戰略을 재수정하여 다시 南韓의 共產化를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北韓의 對南戰略의 環境에 그런 劃期的인 變化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豫想됨으로 이와 같은 戰略의 再修正도 하나의 不確實하고 長期的인 可能性에 지나지 않는다.

라. 다른 主要한 國家들과의 傳統的인 關係：
中蘇의 關係를 中心으로

카터美大統領의 撤軍計劃發表가 있는 뒤인 1977年 5月 以後 北韓의 对中·蘇接近은 보다 활발히 展開되고 있다. 가령 北韓은 中共新疆軍區司令官 楊勇을 團長으로 空軍副司令官 吳富善을 副團長으로 하는 高位軍事使節團을 平壤에 초청하였으며 이와 거의 同時을 같이하여 6月2日 蘇聯最高會議幹部會議 副議長 길라 시빌리가 인솔하는 代表團一行을 맞이하였다. 이제 中共의 1人者 華國鋒의 中共訪問이 예정되고 있는 것이다. 確實히 駐韓美地上軍의 撤收計劃은 北方三角 關係에는 勿論 東北亞情勢 一般에 새로운 狀況을 부여하는 重大한 變化인 것이다. 이러한 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처하면서 자신의 目標 達成을 위해 유리하게 利用하기 위하여 北韓의 对中·蘇關係는 더욱 활발히 추진될 것이 分明하다.

北韓이 그러하지 않으면 안될 重要한 理由는 駐韓美軍撤收라는 狀況變化가 北韓의 对中·蘇外交에 새로운 課題들도 아울러 부과할 것이기 때문인데, 이 點에 대해 崔昌濶教授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여러가지 상정될 수 있는 可能한 課題들 가운데 특히 다음 세가지에 關心을 集中해야 한다. 첫째는 美·中共간의 協調促進問題이고, 둘째는 中·蘇간의 繼續되는 對立속에서 예상되는 蘇聯의 아시아進出強化이며, 셋째는 치열히 展開될 南北韓간의 軍備競爭問題

이다. 예상되는 이와 같은 狀況變化와 그것이 부과하는 課題에 直面하여 어떻게 中·蘇兩國으로 부터 最大限의 軍事的·經濟的·外交的 支援을 얻어 자신의 安全을 確保하고 對南基本戰略을 繼續해 나갈 것인가가 北韓의 最大關心事라고 하겠다.

結論적으로 말하여, 駐韓美軍撤収와 더불어 北韓은 對美·對日 및 對西方國家들과의 關係改善도 추구하면서 자신의 國際的 地位를 높임과 아울러 中·蘇關係에 있어 자신의 比重을 더욱 높이려는데 注眼點을 둘것이다. 이것은 「自主路線」에 입각한 北韓의 對中·蘇政策을 더욱 有利하게 이끌어 주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國防力을 강화하고 對南軍備競爭에 對항하기 위해 蘇聯과의 關係改善에 더욱 注重할 것으로 보여진다.

마. 下記事態에 대한 北韓側 態度

(1) 美·北韓接近可能性: 条件 및 그 豫想展開樣相

① 結論부터 말하여, 美·北韓接近可能性은 充分히 있다.

② 北韓은 1974年 3月 以後 美·北韓单独平和協定の 締結을 내걸고 對美接觸을 꾸준히 시도해 왔다. 이에 대해 美行政府는 大韓民國政府의 參與없는 美·北韓간의 兩者會談이나 兩者協定은 있을 수 없다는 態度를 明白히 하고, 南北韓과 美·中共의 休戰當事者(4者)會談을 추진했던 것이다.

카터行政府의 發足이후 形便은 달라졌다. 간단히 말하여 北韓에 대해 접근하는 姿勢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그 具體的 証拠로 다음의 것들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a. 아시아의 未修交國家와의 全面修交 原則에 北韓을 포함시키고 있는 點

b. 北韓을 더 이상 敵性國으로 부르지 않기로 決定한 點

c. 北韓을 더 이상 美國市民의 旅行制限地域으로 看做하지 않기로 決定한 點

d. 79年 平壤에서 열릴 世界卓球聯盟大會에 美國선수團이 參加하기로 決定한 點

e. 從前의 休戰當事者會談案에서 벗어나 南北韓과 美國의 3者

會談案을 추진하고 있다는 點

f. 티토 유고슬라비아大統領 또는 초세스쿠 루마니아大統領을 사이에 놓고 사실상 北韓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點

③ 카터行政府가 北韓에 接近하려는 論理와 意圖는 다음과 같이 整理해 볼 수 있다.

a. 北韓에 接近함으로써 北韓을 蘇聯圈에서 빼어놓을 수 있다. 이것은 中共으로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b. 北韓接近을 大韓民國에 대한 外交的 지렛대 (레버리지) 로 使用할 수 있다.

c. 大韓民國의 国力이 北韓을 압도하는 境遇 韓半島에 武力衝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北韓에 經濟援助를 提供함으로써 南北韓간의 힘의 均衡을 취해줄 수 있다.

d. 北韓에서 開發될 수 있는 石油에 대한 接近이 可能하다.

e. 이른바 進歩主義的인 일부 知識人들의 見解 (Vietnam Analogy) - 北韓이 民族主義를 代表하고 있는 만큼, 民族主義勢力을 支援해야 한다. 왜냐하면 統一韓國의 民族主義는 蘇聯에 대한 최량의 방파제가 될 것이다.

④ 이러한 現象과 論理를 엽두에 둘때 美·北韓接近은 다음과 같은 樣相으로 展開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다.

a. 3者會談 또는 그 變形案 - 3者會談이 중국적으로 駐韓美地上軍의 撤収를 促進시키고 大韓民國과 美國간의 葛藤을 深化시키며 大韓民國의 國威를 약화시킨다고 判斷될 때 그를 受諾할 것이다.

또는 우선 美·北韓이 會談하고 다음에 韓國을 參與시키는 허담 公式을 實現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그 變形으로 美·北韓이 韓半島問題에 대한 共同聲明이나 合意文書를 發表하거나 또는 어느 一方이 먼저 聲明을 내고 다른 一方이 反應聲明을 낸 다음, 韓國이 參與하는 3者會談을 始作한다.

b. 體育選手團→學者·言論人→演芸·公演團의 交換訪問으로 相互間의 心理的 調整을 꾀한다.

c. 美國은 直·間接의 어느 形態로든 北傀에 대해 經濟援助 또는 借款을 供與한다.

d. 平和協定の 締結과 同時에 駐韓美地上軍의 撤収를 完了한다. 連絡事務所를 相互交換設置한다.

e. 南北韓의 統一問題는 韓民族의 内部問題임을 美國이 認定한다.

(2) 蘇聯의 東北亞政策轉換可能性 및 이에 대한 各國의 對備戰略豫想

① 蘇聯은 中共의 孤立政策을 견지한다.

中·蘇데탕트의 可能性은, 美國의 中共과의 關係正常化政策이 原点으로 돌아가지 않는 限,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北韓 역시 中·蘇데탕트의 可能性이 거의 없다고 보며, 또 그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② 極東에 있어서 蘇聯海軍力の 進出은 繼續 될 것이며, 이것은 日本이 防衛力を 增強시키는 主誘因이 될 것이다.

北韓은 그 두가지를 모두 경계하는 態度를 보일 것이다. 특히 日本의 再武裝傾向을 날카로운 警戒心으로 觀望할 것이다. 이것은 日本과의 關係改善의 慾望을 刺戟할 誘引으로도 看做할 수 있다.

③ 北韓과 美國과의 接近을 蘇聯은 경계할 것이다. 北韓은 이것을 다시 美·蘇사이에서의 줄타기外交로 活用하려는 생각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④ 蘇聯은 SALT II가 美國과의 원만한 合意아래 체결되는 경우, 東北亞問題에 보다 積極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韓半島의 平和定着問題에 대해서도 보다 積極적인 政策을 취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美·北傀의 接近에 따라 大韓民國에 對한 보다 具體적인 接近反應을 보일 可能性도 있는 것이다. 北韓은 이러한 方向으로 의 進展에 쇄기를 박으려 努力할 것이다.

⑤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의 蘇聯海軍力の 強化는 駐韓美軍의 撤収의 結果로 豫想되는 힘의 空白을 蘇聯에게 유리하게 메우면서 아시아에서의 戰略的 目標達成에도 아울러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代案이 될 수 있다. 強化된 蘇聯의 太平洋海軍力은 中共의 軍事力이 對蘇方面으로 集中되지 못한채 분산되도록 間接적으로 海上으로부터 強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日本勢力의 擴張에도 對應할 수 있는 方策이 될 수 있다.

더우기 아시아에서의 蘇聯의 海軍力이 強化되어 東海와 南支那海 그리고 印度洋에 이르는 海上戰略路를 確保하고 制海權을 장악하여 그것이 外交的 攻勢와 결합된다면 對中共 包圍網形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進展은 極東 및 아시아地域에서 蘇聯의 関心과 影響力이 增大된다는 것을 意味하기 때문에 蘇聯으로 부터 더 많은 支援을 얻어내려는 北韓의 對蘇政策에 肯定的인 役割을 할 수도 있다.

(3) 美國의 東北亞政策變化展望과 이에 대한 各國의 對備策

① 美國의 東아시아政策은 現在 變化의 과정에 있다. 結論부터 말한다면, 그것은 「脱軍事化·結交易化」가 될 것이다. 즉 東아시아로 부터 軍事的인 프레전스는 줄이되 交易은 強化한다는 것이다.

② 美國政治人들은 時間이 감에 따라 交易과 經濟問題가 對亞政策의 比重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믿고 있는 듯 하다.

76年의 경우 美國의 對東아시아輸出入 去來額은 5百25億달러나 되었다. 이 額數는 같은해 美國의 對歐洲共同市場交易量인 4百33億달러를 훨씬 웃도는 數字이다. 이것은 美國의 對아시아交易關係가 이미 對유럽의 그것을 앞지르기 시작했다는 指標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現在狀態로 보아 카터行政府는 韓國, 日本,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필리핀에 대한 安保公約에 관해 어떠한 變化나

弱화를 試圖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카터行政府는 從來 아시아關係를 美國의 太平洋安保와 묶어서 하나로 보던 것을 분리시켜 對岸의 政策(Offshore Policy)으로 격하시킨다는 것 정도이다.

이러한 基本立場에서 美國의 아시아 主要國家들에 대한 大體的인 基本政策은 다음과 같다. (鄭鎔碩교수의 見解)

a. 中共과 台灣 - 카터行政府는 中共을 軍事的인 威脅의 對象으로서가 아니라 適當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中共의 現指導層은 蘇聯의 아시아膨脹 및 影響力 增大를 牽制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國內問題에 얽매어 있어 台灣에 대해서도 軍事威脅을 가할 立場에 있지 않다고 美國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b. 日本 - 日本은 카터行政府가 유럽과 더불어 美國外交의 3大基軸을 이루는 나라로 보고 있으므로, 日本重視政策은 繼續될 것이다. 그리고 日本으로 하여금 global power 는 아니나 regional power 로 成長하도록 북돋을 것이며, 窮極的으로 이 地域에 있어서 美國의 役割을 日本이 代行토록 할 것이다.

c. 필리핀 - 닉슨의 中共訪問과 越南休戰을 계기로 필리핀은 클라크空軍基地와 수빅灣 海軍基地에서 美軍의 撤収를 要求한바 있다. 그러나 그 뒤 필리핀의 態度는 누그러졌고 지금 美國은 兩基地에 駐屯하는 1萬5千名의 美軍을 減縮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政府는 兩基地 使用權에 대한 協商에서 엄청난 軍事援助를 條件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北韓은 美國의 이러한 東아시아政策을 美國勢의 後退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趨勢의 하나에서 駐韓美軍의 撤収를 促進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4) 中·日接近에 대한 北韓의 反應

中·日은 올해 안에 友好條約을 締結할 것이 거의 確實하다.
그리고 反覆權條項의 表現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
으나, 대체로 反蘇적인 性格이 될 것이다.

中·日友好條約은 確實히 아시아에 있어서 새로운 時代의 始作을
뜻한다. 그것은 東아시아에 있어서 緊張을 완화하고 아시아에서 이
룩되고 있는 소위 4強體制에 있어서 中共과 日本의 地位를 強化시
킬 것이다. 兩國의 貿易規模는 크게 擴大될 것이며, 技術과 資本의
協力도 擴大될 것이다. 특히 工賃이 몹시 비싼 日本은 賃金베이스
가 낮은 中共에 技術과 플랜트를 提供, 中共의 工業化를 促進하면서
中共市場에 파고들 것이다.

中·日協力は 韓半島의 南北關係에도 影響을 미칠 것이 確實하다.
그것은 中共의 韓國政府에의 接近, 그리고 거꾸로 日本의 北韓接近을
재촉하는 要因으로 作用할 수 있는 것이다.

또 中·日協力は 長期的으로 美·中·日 3角同盟의 基盤이 될 것
이며 여기에서 韓國이 어떤 役割을 하게 된다는 展望은 北韓의 美

日接近의 意慾을 고취시키는 要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中共이 当面한 最大의 課題는 中共軍의 現代化를 통한 軍事力 伸張과 經濟的 近代化를 통한 經濟開發이다.

이를 위해선 美國의 軍事的, 技術的, 經濟的 支援이 필수불가결하므로 美·中共接近은 당연한 것으로 中共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은 그들의 對南基本戰略에 대한 中共의 支持가 弱화될 수 있다는 事實을 重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개의 韓國」論議 또는 「4強의 交叉承認」등의 問題가 中共에 依해 現實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念慮하고 있는 것이다.

4. 參考文獻 (無順)

- (1) Chung, Joseph Sang-hoon, The North Korean Economy: Structure and Developmen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Hoover Institution Press, 1974).
- (2) Clough, Ralph N., East Asia and U. S. Security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1975).
_____, Deterrence and Defense in Korea: The Role of U. & Forces (Washington, D. C.: Brookings Institution, 1976).
- (3) Kim, Ilpyong J., Communist Politics in North Kore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75).
- (4) Kim, Young C., Major Powers and Korea (Silver Spring, Md.: Reserarch Institute on Korean Affairs, 1973).
- (5) Kiyosaki, Wayne &., North Korea's Foreign Relations: The Politics of Accomodation, 1945-1975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76).
- (6) Koh, Byung Chul, Foreign Policy of North Korea (New York: Frederick A. Praeger, 1969).
- (7) Harrison, Selig, "One Korea," Foreign Policy, No. 17 (Winter, 1974-75).

- (8) Kim, Dal Choong, "North Korean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 paper presented to the Korean-American-Japanese Conference on Northeast Asia, Seoul, July 5-6, 1977.
- (9) Lee, Joung-Koon, "North Korean Foreign Trade in Recent years and the prospects for North-South Korean Trade," Journal of Korean Affairs, Vol. IV, No.3 (October, 1974).
- (10) Pillsbury, Michael, "U. S. Chinese military Ties?" Foreign Policy, No.20 (Fall, 1975).
- (11) Zagoria, Donald S. and Kim, Young Kun, "North Korea and the Major Powers," Asian Survey, Vol. XV, No.12 (December, 1975).

